

강원도 겨리연장과 발갈애비

발갈애비의 삶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저 자 김세건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발행인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기획 및 편집 장정룡 강원학연구센터장
이종미 강원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발행처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전화 033. 250. 2982
홈페이지 www.gangwonstudies.re.kr

제 작 도서출판 산책
주소 강원도 춘천시 우두강독길 23
전화 033. 254. 8912

ISBN 978-89-5705-744-5

강원도 거리연장과 발갈애비

발갈애비의 삶

1. 겨리연장, 그게 뭐예요?	9
2. 쟁기와 강원도	16
1 쟁기의 출현과 지역적 분화	16
2 쟁기[연장]의 보고, 강원도	22
3. 강원도 농업환경과 겨리농경	27
4. ‘밭갈애비’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여!	39
1 밭갈애비 호칭의 지역별 특성	42
2 밭갈애비 되기 과정	51
(1) 탐손 잡기와 같이 기술 배우기	51
(2) 화전갈이: ‘너 화전 갈아 봤어.’	56
(3) 씨레질과 성군	61
3 밭갈애비와 성군이 나가신대	69

5. 발갈애비와 성군의 조건	72
1 열두 군대를 보아야 해요	72
2 소와의 소통: 소와 소를 잇고 소통한다	81
(1) 부림소 만들기	82
(2) 소와 어떻게 소통하지? : 채찍, 고삐 그리고 소리	86
6. 소모는소리 속에 담긴 땅과 발갈애비의 삶	94
1 왜 강원도에는 ‘소모는소리(쇠소리/소소리)’가 있을까?	94
2 소모리소리의 구성과 특징	101
7. 연장사회기술체계와 발갈애비의 역할	109
8. 발갈애비와 겨리연장에게 길을 묻는다	117

강원도 거리연장과 발갈애비
발갈애비의 삶

김 세 건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

거리연장, 그게 뭐예요?

필자는 강원대학교에서 2006년부터 매 학년도 1학기에 <강원문화의 이해>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강원도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다루는 시간에는 꼭 학생들에게 “혹시 ‘거리연장(쟁기)’를 아는 사람?”하고 물어보곤 한다. 학생들은 단지 “거리연장, 그게 뭐예요?”라고 되문듯이 필자의 얼굴을 멍뚱멍뚱 쳐다보거나 서로의 눈빛을 살필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거리연장은 오래전에 우리에게 잊힌 농기구이다.

1970년대 농촌 근대화와 함께 경운기 등의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농촌에서 우경(牛耕), 즉 쟁기질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물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의 일부 산간 지역에서 우경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 또한 매우 귀하여 <6시 내고향> 등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접할 뿐이다. 농사는 오랜 기간 인간 삶의 근본이었고, 인간 활동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였다. 그런데 세상이 언제부턴가 이익 창출을 위한 상품을 대량으로 생



그림 1 멕시코 농촌의 쟁기
멕시코 모렐로스 주 테보스틀란 무니시피오 산 안드레스 데 라 길의 쟁기

산하는 제조업, 이른바 2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농업은 여러 산업 가운데 하나인 1차 산업으로 명명되었고, 다른 산업에 비해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을 겪으면서 천대를 받았다. 우리네 먹거리를 생산했던 농민들은 자신들의 ‘먹거리’를 찾아 농촌 그리고 땅을 떠났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는 농산물, 이른바 진정한 먹거리가 없다면 살 수 없고, 이 먹거리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땅과 소통해 왔는데, 그 가운데 생산도구가 있었다. 옛 생산도구 가운데 으뜸은 쟁기였고, 쟁기를 빼놓고는 농사를 이야기할 수 없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겠다. 마치 쟁기에 관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필자도 강원대학교에 와서야 강원도의 거리쟁기, 정확하게 말하면 거리연장이 지닌 의미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눈을 뜨게 되었다. 또한, 쟁기와 연장의 차이에 주목하게 된 것도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였다.

필자는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 멕시코의 국립멕시코자치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UNAM)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밟던 1995년 후반에 한 농촌 마을에서 박사학위 논문(Se-Gun Kim Lim, 1999)을 위한 현지연구를 시작하였다. 현지연구 대상지는 멕시코시티(Mexico city)에서 버스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렐로스(Morelos) 주(州) 테포스틀란(Tepoztlán) 무니시피오(Municipio, 한국의 시·군에 해당하는 행정단위)의 산안드레스 데 라 깔(San Andrés de

la Cal, 이하 산 안드레스)이라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당시 필자의 관심사는 1940년대부터 진행된 멕시코 농촌 근대화 이후 이 마을의 생태체계(ecosystem)는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가였다. 1995년 당시 산 안드레스 마을은 농업기술 측면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일부 농민은 토마토 등 환금작물을 재배하기도 했지만, 농민 대부분은 여전히 전통 경작기술을 이용하여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었다. 따라서 소 또는 말 두 마리가 끄는 옛 겨리쟁기와 최신 쟁기, 이른바 발란신(balancín)쟁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부 부농만이 트랙터를 이용하였는데, 당시 마을에 트랙터 3대가 있었다. 그 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트랙터를 구입하는 농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쟁기는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2013년 마을을 방문했을 때, 쟁기를 사용하는 농민은 아무도 없었다. 현지연구를 하던 당시, 필자도 트랙터가 농기구의 핵심이 되리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쟁기 그 자체보다는 농기계가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생태적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쟁기를 대신한 트랙터 경작 방식이 불러일으키는 토지 침식, 경작 체계의 변화 등에 관심을 두면서도, 오히려 쟁기의 경작 방식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문화적, 생태적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필자는 당시 두 마리가 끄는 멕시코의 겨리쟁기를 보면서 강원도의 겨리쟁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고향 전라도 남쪽의 조그만 섬, 완도 청산도에서 쉽게 보았던 소 한 마리가 끄는 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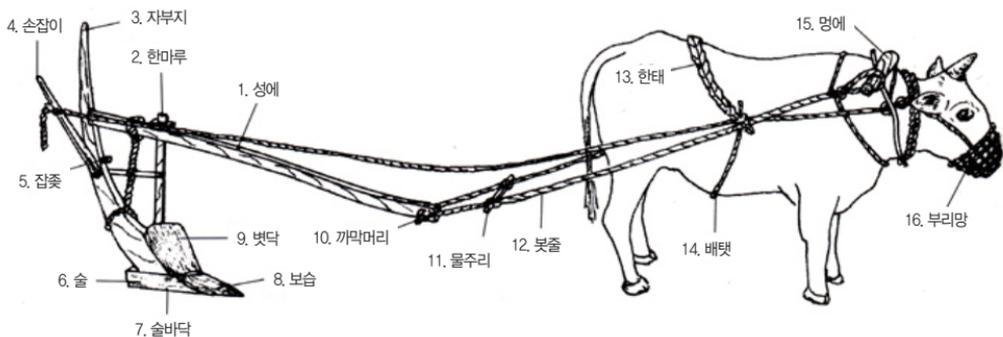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개량쟁기(일명 왜쟁기)
출처: 농촌진흥청 (한국의 전통 농기구)

쟁기(개량쟁기, 일명 왜쟁기)를 떠올렸다. 더불어 유학 초기에 세상을 등지셨던 할아버지에 대한 아련한 추억의 시선으로 멕시코 거리쟁기를 바라보았다. 필자가 어릴 적 할아버지는 고향의 안뜰에 있는 자그마한 문중담(門中沓)을 경작하시면서 모내기 철만 되면 윗동네로 소를 빌리러 다니시곤 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어부로 사셨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조금만 땅이라도 부치셨는데, 농사량이 많지 않아서 굳이 소를 직접 키울 필요가 크지 않으셨던 것 같다. 그런데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신 할아버지는 마음의 한편에는 늘 농사지을 땅과 소를 갖고자 하는 바람이 있으셨고, 농사철이 되면 그 바람이 더욱더 크셨던 듯하다. 때론 이른 새벽에 잠자는 어린 손자의 머리맡에서 일소

를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혼자 되뇌시곤 하셨다. 당시 필자는 추억 너머로 멕시코의 겨리쟁기와 내 고향의 호리쟁기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니 생각하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멕시코에서처럼 소가 두 마리가 끄는 겨리쟁기가 한반도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이때에는 할아버지가 문중답을 갈기 위해 빌려 쓰셨던 호리쟁기가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한국의 재래쟁기라고 생각했다. 이 쟁기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보급된 개량된, 이른바 왜쟁기라는 사실을 본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더욱이 청산도에서는 왜쟁기뿐만 아니라 재래 호리쟁기도 최근까지 쓰였다는 것을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사진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알았다. 이처럼 필자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근대 교육체계에 의해 키워졌고, 내 고향 나아가 한반도에 형성되고 우리네 삶을 지탱해 온 '전통' 생산문화에 대하여 무지한 기술의 진보를 신봉하는 '근대인(近代人)'이하고자 했다. 그런 필자가 강원대학교 강단에 서면서 겨리연장이라는 존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솔직히 오랫동안 필자의 눈에도 쟁기는 단순한 농기구일 뿐이었다. 그런데 강원도 산촌을 누비며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쟁기가 경이롭게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쟁기를 마주치는 행운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고, 쟁기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렸다. 마냥 좋았다. 생각해보라!!! 그냥 흠어져 있으면 단순한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들이 서로 끼워지고 맞춰지면 인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농기구로 탈

바꿈하였다. 게다가 서로 다른 생태조건에서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서 사뭇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으니 말이다. 농민, 이른바 밭갈애비들은 자신의 농업환경에 맞는 갖가지 쟁기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삶을 그곳에 담았다. 모든 농기구도 그렇겠지만, 쟁기는 그렇고 그런 농기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땅 농민들의 삶과 지혜의 덩어리였다. 쟁기를 보면 한반도의 역사, 삶 그리고 문화가 보인다. 쟁기가 다 사라지고 잊힌, 이른바 아주 오래된 전통문화가 되어버린 지금에서야 강원도 나아가 한반도의 농사를 지탱해 온 바탕은 쟁기와 밭갈애비였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2

쟁기와 강원도

1 쟁기의 출현과 지역적 분화

인류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과 함께 또 다른 길로 들어섰다. 신석기 시대부터 대략 18세기까지 농업은 인간의 삶과 사회문화의 토대였다. 1700년대 말에도 정주(定住)사회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농업에 직접 종사했다(화이트 주니어, 2005:57). 농사는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땅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땅을 다루는 일 가운데 가장 핵심은 땅을 가는 일, 이른바 논밭갈이였다. “전통 농업사회는 물론이고 근대사회에서도 논밭갈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느냐는 그 나라의 부와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다. 땅을 가는 데 사용하는 연장으로서는 가축이 끄는, 소위 축력쟁기가 가장 대표적이었고, 쟁기는 한 사회의 농업기술 발달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였다(박호석, 2001:74 참조).” 논밭갈이를

하는 생산도구 가운데 으뜸이 바로 쟁기였다. 쟁기는 인력 외의 가축 등의 동력을 농사에 이용한 최초의 도구였다.

한반도에서 쟁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한반도에서 농경은 B.C. 4000년경 신석기 시대에 조[粟]를 비롯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시작되었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 크게 발달하였다. 이때 조 이외에 수수·콩·팥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고, 특히 벼의 재배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고대 농경문화가 정착되었다. 농기구도 농경발전과 더불어 오랜 기간에 걸쳐 농업 생산활동의 각 부분인 기경·파종·제초·수확 등에 따라 분화하며 발전하였다. 기경용 농기구의 핵심은 쟁기였다. 한반도에서도 A.D. 1~2세기에는 우경이 시작되어 6세기 초에는 보편화되었다. 그 뒤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쟁기는 농사를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농기구였다. 무릇 쟁기는 우리네 모든 농기구의 으뜸으로, 한반도 농사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일제강점기 일본 농학자였던 타카하시 노보루(高橋 昇)는 “조선의 농업문화는 일본과 달리 쟁기가 이끌어왔다. 따라서 조선에서 쟁기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일러왔다(김광언, 2010: 93-94 재인용)”고 했다.

쟁기는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다른 농기구와 더불어 다양해졌고, 무엇보다 지역적으로 분화되고 특화되었다. 정시경은 구체적으로 축력 두수에 의한 쟁기의 분포와 지역별 쟁기분포를 도표화 했는데,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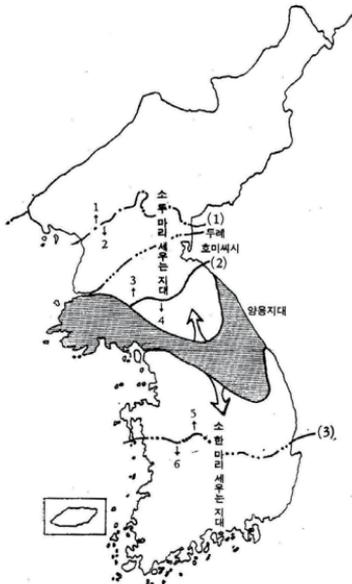


그림 3 추력 두수에 의한 쟁기의 분포
출처: 정시경(1989a: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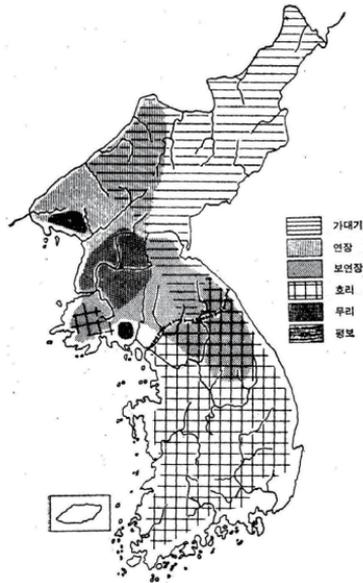


그림 4 쟁기 분포도
출처: 정시경(1989b:198)

두 분포도가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시경이 이 글을 썼던 1960년 이전, 상식적으로 20세기 초반을 전후로 한 현실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선 시대 농서에서 18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쟁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겨리와 호리의 지역적 분화는 18세기 말을 지나면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분포도를 서로 대비해본다면, 호리와 겨리의 경계선은 대체로 호리와 연장·가대기의 경계선과 엇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호리

는 호리(쟁기), 겨리는 연장과 가대기 권역에 상응한다고 하겠다.

쟁기를 소 한 마리에 거는 것을 호리[胡犁], 두 마리에 거는 것을 겨리[結犁]라고 한다. 겨리는 맺을 결(結)이 연음된 것으로 두 마리 소를 결합한다는 의미이다. 호리쟁기와 겨리쟁기는 그 형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호리쟁기는 성애가 짧거나 두 가닥이다. 겨리쟁기는 성애가 길고 두 마리 소를 하나의 멍에에 연결하는 ‘쌍멍에’이다. 물론 호리 또는 겨리쟁기라고 하여도 지역마다 달랐다. 지역적으로는,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북부 지역은 겨리, 평야가 많은 남부지역은 호리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경기도 북부,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를 걸친 지역은 양자를 혼용하고 있었다. 즉, 한반도에는 호리, 연장, 보연장, 가대기 등 다양한 형태의 쟁기들이 혼합해서 분포하였다.

강원도 남부와 경기도 지방으로부터 남으로 내려감에 따라 호리의 이용률이 많아지면서, 한강 이남의 남부 지역에서는 호리가 유일한 쟁기로서 논갈이와 밭갈이를 다 수행했다. 황해도 북부 이북 및 강원도 북부 이북의 일정한 지역까지는 두 개의 쟁기, 즉 동해안 지역에서는 보연장과 가대기, 서해안 지역에서는 보연장과 연장이 병용되었다. 중부 조선을 포함한 서북부 지역에서 대표적 쟁기는 연장이고, 연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유형의 쟁기들은 모두 밭농사에서 발생하여 발전된 것들이다. 특히 남부의 호리가 북부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연장은 호리의 요소와 결합하여 보연장이라는 변형형이 생겨났다. 보연장은 구조 측면에서 연장과 큰 차이가 없으나, 흙을 뒤집는 벼이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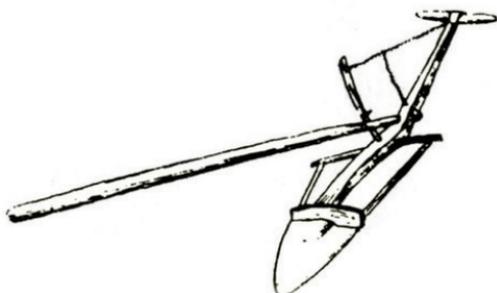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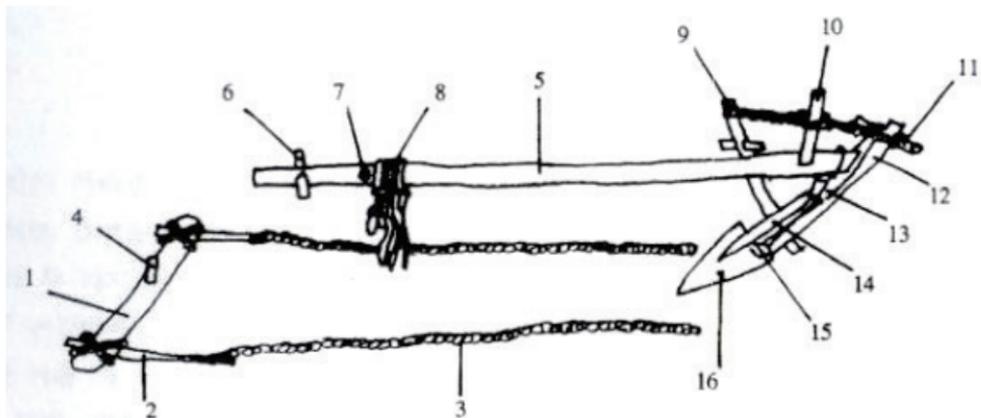


그림 5 지역별 재래호리 출처: 정시경(1989b) (좌) 가대기 출처: 조선향토대백과(우)



- ①명예(길이:180cm, 굵기:8.5cm) ②목살 ③목줄 ④초꽃이
 ⑤성예(길이:263cm) ⑥줄걸이 ⑦줄걸이구멍 ⑧닷줄 ⑨모로리
 ⑩링개걸이 ⑪탐손 ⑫번데기 ⑬뎃방(뎃방) ⑭지질개 ⑮귀살이
 ⑯보습(길이:50cm, 폭:47cm)

그림 6 강원도 흥천 거리연장의 구조와 명칭 출처: 이준석(2001 :95)

되고 논농사에 적합하도록 변화하였다. 즉 보연장은 밭갈이에 이용되는 일도 간혹 있으나 주로 논갈이에 이용되었다. 가대기는 쟁기 중 가장 큰 것이며, 함경도를 중심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함경남도의 북부, 함경북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연변 및 과거 소련 연해주 일대의 수백만 조선 사람들이 쟁기와 연장을 모두 가대기라고 했다. 이는 함경도 주민들이 연변과 연해주에 이주하면서 가대기도 퍼졌기 때문이다. 가대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술의 좌우 끝에 2~4개의 분살을 비너로 고정했다는 점인데,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장치이다. 비너와 분살의 역할은 이랑을 높게 짓기 위한 것으로 평안도에 비하여 자갈밭이 많았던 함경도의 자연조건과 척박하고 넓은 면적을 경작하던 광작(廣作)의 농사환경과 관련되어 있다(강석준, 1989:255-257; 정시경, 1989c:191, 1989d:156-157; 김광언, 2010:124 참조).

호리, 연장 그리고 가대기로 대표되는 각 지역의 독특한 같이 농기구들은 토양, 토질, 논밭상태, 기후환경, 경작방식, 노동조직 등과 어우러져 지역만의 특징의 농경기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같이농경 기술체계는 크게 호리, 겨리로 구분되고, 호리는 호리(쟁기) 지역, 겨리는 연장, 보연장, 가대기 지역에 상응하는데, 겨리농경의 핵심은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호리가 일반적이어서, 두 마리 소가 쟁기를 끌어 논과 밭을 가는 것, 이른바 겨리농경을 특이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겨리는 연장, 보연장, 가대기라고 부르는 경기 북

부, 강원도, 북한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논밭갈이 농경방식이었다. 특히 이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 열악한 농업 환경에 적응하고자 다양한 갈이방식과 그에 맞는 농기구를 발전시켜왔다.

2 쟁기[연장]의 보고, 강원도

[그림 3]에서 드러나듯이, 강원도는 호리, 연장, 그리고 가대기가 만나는 곳이고, 겨리와 호리의 접경지역으로, 호리, 연장, 보연장, 가대기 등 여러 가지 쟁기들이 혼합해서 분포되어 있다. 한마디로 강원도는 쟁기 연구 나아가 남북분단의 시대에 있어서 연장 연구의 유일한 보고(寶庫)이다.

여기에서 쟁기와 연장의 차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먼저 남북한의 국어사전에서 쟁기와 연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살펴보겠다. 1961년에 처음 발간된 이희승 편 의 『국어대사전』(이희승, 2003)의 쟁기와 연장의 정의이다.

쟁기 耩 논밭을 가는 데 쓰는 연장의 한 가지. 쟁기술 끝에 보습을 끼우고 그 위에 벼를 한마루 몸에 의지하여 덧대고, 성에 앞 끝에 줄을 매어 마소에 멩을 메워 논밭을 갈. 호리와 겨리의 두 가지가 있음. 뇌사(耒耜). * 겨리.

연장' 耩 [중세 : 연장] "①<<건>> 어떤 일을 하는 데 쓰는 도구.

② '남근(男根)'의 비어. ③<방> 쟁기(경기·강원·충북·경북).

다음은 북한에서 발간한 『현대조선말사전』(사회과학언어학연구소, 1991)의 쟁기와 연장의 정의이다.

쟁기 [명] ① 주로 농사일에 쓰이는 도구를 통털어 이르는 말 ② <<보습>>을 이르는 말. || ~ 다루는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호미와 ~. ③ <<도구>>를 이르는 말. | 옛날 우리 선조들은 변변한 쟁기도 없었는데 저런 큰 돌들을 어떻게 옮겨다가 이런 성을 쌓았을까. ④ <<무기>>를 이르는 말.

연장' [명] ① 밭갈이기구의 한 가지. 보습날에 벗이 달리지 않는다. 이랑갈이에 쓰인다. || 밭을 가는 ~. ② <<논밭갈이기구>>를 두루 이르는 말. ③ 목수도구나 야장도구 같은 것을 두루 이르는 말.

두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쟁기와 연장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 한마디로 어느 곳에서는 쟁기는 쟁기가 아니고, 연장은 연장이 아니다. 사실 쟁기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논농사 지대에서 주로 이용되며 한반도의 유벽리(有壁犁), 즉 벗을 가진 쟁기를 대표하였다. 그런데 쟁기는 논밭을 가는 농기구의 대명사로서 점차 자리매김하였다. 쟁기는 논밭을 가는 농기구라는 한 가지 뜻으로 차츰 고정되고, 경기도를 넘어 한국 전체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다른 지역어인 연장, 가대기, 후치 등과 견주어 언어적 체계모니를 획득하였다. 물론 사전적 의미만으로 쟁기가 대표성을 획득해가는 단일한 과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다양한 지역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쟁기와 경쟁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함을 유지했다. 이들 이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연장이고, 이 점은 강원도, 특히 강원도 중북부 지역에서 확인이 된다. 강원도 중북부 지역에서는 한국의 어느 지역처럼 쟁기와 연장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각 용어가 가리키는 의미는 한국말 사전보다는 북한의 『현대조

선말사전』에서 정의한 것에 적합하다. 즉 강원도에서 쟁기는 쇠스랑, 팽이, 낫, 호미 등과 같이 쇠로 만들어진 농기구를 총칭하고, 연장은 소를 이용하여 논밭갈이를 할 때 사용하는 농기구를 말한다. 한마디로 강원도를 비롯하여 한반도 중북부 지역에서는 겨리 또는 호리 쟁기가 아니라 겨리 또는 호리 연장인 셈이다.

또한, 강원도는 호리와 겨리연장이 공존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강원도 내에서도 호리와 겨리연장을 사용하는 지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겨리연장은 영동 지역보다는 주로 영서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강원도의 많은 지역 나아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호리가 아니라 굳이 겨리로 농경 활동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겨리 농경의 존재 배경에는 토질, 경사도, 깊이갈이의 정도, 고랑과 이랑 짓는 방법 등과 같은 생태환경적, 기술적 측면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준석, 1988:77-78, 2001:101). 돌이 많고 건조하고 척박한 토질의 경작지에서는 동일한 깊이로 갈더라도 당연히 더 많은 견인력을 요구한다. 산악 지대는 날씨가 춥고 일조량이 적어 빠른 시간 안에 갈이와 파종을 끝내야 하므로 견인력이 큰 겨리가 호리보다 효율적이었다. 산간 지역의 불규칙적이고 밑으로 구를 염려가 있는 비탈진 경작지를 갈기 위해서는 두 마리 소가 서로 의지하고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겨리가 안정적이며 효과적이었다. 특히 경작지의 경사도가 급할수록 토양의 침식이 심하므로 심경을 하여 이랑을 넓게 짓는 광묘를 해야 했고, 또한 동력농기계 사용이 거의 곤란하므로 겨리 농경이 적절했다. 겨리연

장은 강원도 산악지대의 거칠고 경사진 밭농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겨리 농경의 핵심을 구성하는 같이 농기구였다.

강원도 대부분의 겨리연장 지대에서는 논칼이와 밭칼이 두 종류의 연장을 별도로 준비하였고, 심지어 화전이 성행하였던 인제, 화천, 양구, 홍천 등의 영서 중북부 지역에서는 논칼이와 밭칼이 외에 산전 경작을 위한 산칼이 연장도 마련하였다. 논칼이와 밭칼이 연장은 비슷한 삼각형 역학구조 틀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성에, 모로리(한마루), 번데기(술)가 서로 맞물리는 각도와 지점이 다르다. 또한, 각 연장의 부위에 사용된 목재는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연장의 각 부분의 기능에 맞는 성질을 갖고 있는 나무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연장이 완성되었다. 하나의 연장을 거는 자체가 연장의 각 기능과 나무의 성질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였다. 강원도 북부 지역, 중남부 지역, 동해안 지역에서 겨리연장 또는 호리연장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목재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연장에 사용되는 나무 하나도 지역 산림에 대한 전통지식에 기초하여 이용되었다. 또한 강원도에서 행해지는 농사력과 경작체계, 논갈이·평밭갈이·화전갈이 등으로 차별화되는 같이방식 등에 따라 논칼이·밭칼이·산칼이 등의 겨리연장, 걸기채(극쟁이), 인걸기 등의 다양한 같이농구, 나아가 호미 등의 김매기농구 등이 발전하였다.

겨리농경은 소와 인간이 결합한 노동을 말하는데, 부림소와 밭갈애비의 소통능력이 논밭갈이의 성과를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겨리농경 지역에서 소는 사람들과 좀 더 긴밀하고 독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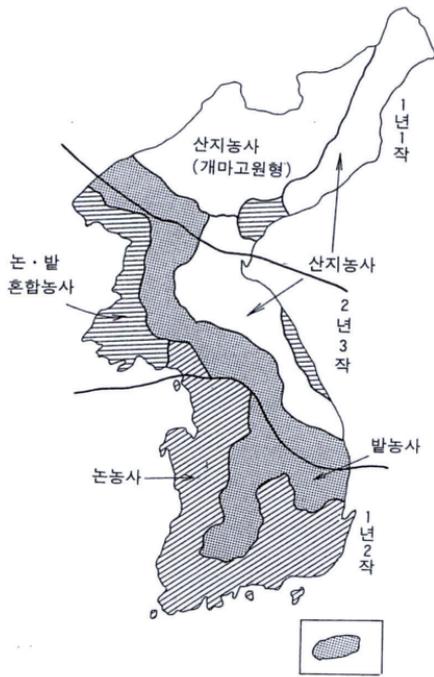
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는 주거환경, 제의과정에서도 반영되었다. 강원도에서 소는 살아서 일꾼이자 친구였고, 죽어서는 군웅신이 되었다.

강원도에서 겨리연장이 주 같이농구였던 1970-80년대까지 한 집에서 부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소가 있는 두 집이 서로 짝을 이루어 ‘짝집’이라는, 이른바 ‘소겨리’를 구성하였다. 소겨리에는 소를 가진 가구뿐만 아니라 소가 없는 가구를 포함하여 보통 3-6가구가 참여하였다. 이런 소겨리는 겨리농경을 위한 기본적이면서 최소한 노동단위가 되었다. 이른바 두 마리 소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노동조직, 농우공동체가 구성되었다. 소겨리는 논농사 지대에서 널리 조직되었던 두레와는 다른 특성을 지녔다. 소겨리가 한번 이루어지면 일회적으로 한 해만 공동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겨리 관계가 성립되었다. 소겨리는 일년동안 지속되는 밭농사의 특성상 농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이른바 ‘겨리사촌’이라는 일상공동체, 즉 겨리공동체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소겨리는 강원도 나아가 한반도 북부 지역의 공동체 문화의 기틀을 이루었다. 한마디로 겨리 농경은 강원도를 비롯한 한반도 북부 산악지대라는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기술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쟁기, 즉 겨리연장은 단순한 논·밭갈이 농기구일 뿐만 아니라 생태적 특성, 즉 지역의 자연, 지형, 지질, 소의 생활, 소와 인간의 소통방식, 사회관계, 주민들의 삶, 세계관을 담고 있다.

3

강원도 농업환경과 겨리농경

일제강점기인 1933년 3-11월 사이에 제주도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전국을 총 4회에 걸쳐서 여행하고 한국 지리서를 냈던 독일의 지리학자 헤르만 리우텐자흐(Herman Lautensach)는 “한국은 동아시아의 대 지역 속에서 작지만, 매우 강한 지리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2018:266)”고 했다. 대륙으로부터 해양으로 변화하는 점이적 성격을 보이는 한국의 자연환경은 온대 지방에 속해 있으나 계절에 따라 한대에서 아열대에 이르는 기후 특성을 보인다. 지역에 따라 사계절의 배분, 강우량의 분포, 일조량 등에서 매우 다면적인 기후와 지세에 따른 다양한 토양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기후와 토양의 다양성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종류의 농작물 재배를 가능하게 하였고, 또 그에 따른 온갖 농업기술과 농경 문화를 배태시키는 한



지도 한국의 농업지대 구분
출처: 임덕순(1992:142)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박호석, 2000:43 참조). 이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업지대로 표현되었다. 이런 특성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농사지역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한반도의 농업지대는 논농사 지대, 밭농사 지대, 산지농사 지대 등으로, 그리고 작물체계는 1년 2작, 2년 3작, 1년 1작 등으로 나뉜다. 이런 농업지대와 작물체계 구분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한반도 농업지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틀이 되었다. 한반도 중북부에

위치한 강원도는 남쪽보다 훨씬 더 밭농사의 중심성이 높은, 이른바 밭중심의 논밭병행영농이 이루어졌다.

한반도의 척추와 등에 해당하는 동북쪽 중간지점에 있는 강원도는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지형을 띄고 있다. 강원도하면 보통 오지 또는 청정의 이미지를 떠올릴 만큼 자연과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산은 강원도 자연환경의 대표 상징이고 그 가운데 태백산맥이 있다. 태백산맥은 낭림산맥과 함께 한국의 중추, 백두대간을 이루는 척량(脊梁)산맥으로 지형, 기후, 풍토, 문화 등에서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 두 지역으로 나누는 경계선을 이룬다. 사실 오늘날 영동과 영서 지역을 말하면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남쪽 지역만을 생각하지만, 강원도의 북쪽 경계는 철령을 기준으로 하며, 영동과 영서 지역에는 북강원도를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남북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한가운데에 품고 있고,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동해가 흐르는 비슷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 즉 남북 강원도는 분단 이전에 동서로 구분되는 자연지리적 특성을 공유한 하나의 강원도였다. 헤르만 라우텐자흐는 “강원도는 한편으로 좁은 해안 지역을 포함한 태백산맥과 다른 한편으로 한강 상류에 의하여 심하게 개석(開析)된 경동지괴(傾動地塊)의 고도가 높은 지역들로 이루어진 지리적으로 매우 상이한 두 개 지역을 포함한다(2018:418 참조)”고 했다. 그는 한반도를 북부, 중부, 남부 지방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이를 16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였는데, 강원도를 ‘금강산을 포함한 태백산맥’ 지역과 ‘한강 상류’ 지

역으로 구분하였다.¹ 태백산맥 지역은 대부분 강원도의 북동부 1/3 지역에 제한되고, 남단만이 일부 경상북도로 연장된다. 한강 상류 지역은 강원도의 2/3,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주변 지역과 심지어 임진강 유역으로 연장되는 함경남도의 남서단도 포함한다. 태백산맥 지역과 한강 상류 지역은 각각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으로 바뀌 불려도 큰 차이가 없을 듯하다.

태백산맥이 영흥만의 바로 남쪽에서 시작하여 동해로부터 불과 20-30km의 거리를 두고 해안선을 따라서 병풍을 두른 것처럼 높고 가파르게 솟아 있어 강원도는 태백산맥 중심의 비대칭적 지형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지형을 보통 ‘경동지형(傾動地形)’이라고 한다. 태백산맥의 동쪽, 이른바 영동 지역은 급경사면으로 동해에 이르러 좁고 남북으로 긴 해안지대를 이룬다. 영동 지역은 물길이 짧고 작은 하천만 흐르는데, 하천들 하류에 좁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낮은 구릉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영동지역의 가장 끝부분으로 갈수록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출된 모래로 이루어진 사빈(沙濱)이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선이 복잡하지 않다. 영동 지역은 난류 등의 영향으로 영서 지역보다 절기가 보름쯤 빠르다.

-
- 1 헤르만 라우텐자흐(2018:270)의 한국의 지리적 지역구분은 다음과 같다.
- I. 북부 지방 1. 북부 동해안 지역 2. 개마고원 3. 백두산 지역 4. 평북 지역
 - II. 중부 지방 5. 대동봉지 6. 황해반도 7. 경기 지역과 수도 서울 8. 한강 상류 지역 9. 영흥만 주변 지역 10. 금강산을 포함한 태백산맥 11. 울릉도
 - III. 남부 지방 12. 경상봉지 13. 지리산을 포함한 소백산맥 14. 충청-전라 지역 15. 남해안 지역 16. 제주도

영서 지역은 태백산맥의 지맥인 여러 산맥이 남서 방향으로 완만하게 뺨어 내리고 있다. 헤르만 라후텐자흐는 한강상류 지역, 즉 영서 지역은 “바다에 접하지 않는 중부지방의 유일한 지역으로 북부지방의 개마고원 지역에 상응하며, 비록 이 지역의 산의 고도는 개마고원의 관모봉(함경)산맥이나 그 주변 산맥들의 절대고도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지만 지세는 개마고원 지역과 유사하다(2018:418-419 참조)”고 했다. 따라서 영서 지역에는 몇몇 큰 산이 분포하고 있지만 높이는 1,000m 내외로 상대적으로 기복이 적고 평평한 지형이 많은 편이다. 임진강 유역에 위치한 철원군을 제외한 영서 지역 대부분은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에 속해 있는데, 두 강의 본류와 지류들이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뺨어 나가며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많이 만들어, 깊은 골짜기와 산이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다. 이곳이 강원도 산간 지역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개마고원 지역의 자연적인 상태와 유사한 영서 산간 지역은 한반도 화전경작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강원도는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와 더불어 화전 경작이 성행했는데, 화전의 대부분은 영서 지역에서 행해졌다. 다른 한편, 영서 지역의 골짜기들은 서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며, 환히 트인 침식 분지들이 나타난다. 특히 평강과 철원의 현무암 지대, 춘천분지의 층적 산록, 홍천 북동부의 구조곡, 홍천강 하곡, 횡성과 원주 주변 지역은 강원도에서도 벼농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진 곳이다. 강원도의 중심도시인 춘천, 홍천, 원주 등이 이러한 침식분지에 자리하고

있다. 산간이 많은 영서 지역은 절기가 영동 지역보다 보름, 경기도보다 열흘 정도 늦은 편이고, 또한 산 하나를 두고도 남쪽과 북쪽이 다르다고 했다. 이 차이는 영동과 영서 지역의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영동과 영서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산악지형을 바탕으로 밭농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김의숙(1995)은 '산간 농업 문화'라는 '강원도다운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했다. 강원도의 밭농사 중심성은 전국토지이용현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표 1 2010년 전국 토지이용현황 (단위: ha)

구분	논	밭		임야		기타	계
		밭	과수	초지	임지		
전국	1,010,286	603,138	123,374	65,056	6,305,247	1,882,641	9,989,742
광역시*	42,173	20,234	4,935	1,401	250,536	226,980	546,259
경기	103,938	72,436	7,092	6,223	539,863	302,181	1,031,733
강원	43,869	66,810	968	14,507	1,335,242	207,737	1,669,133
충북	52,994	57,155	8,770	2,896	491,107	126,821	739,743
충남	172,136	58,718	6,827	4,755	434,971	188,591	865,998
전북	146,164	56,670	2,834	3,837	443,592	152,092	805,189
전남	198,874	107,213	3,716	6,898	692,133	201,781	1,210,615
경북	144,150	82,782	51,733	5,268	1,338,514	265,804	1,888,251
경남	105,930	43,178	15,014	2,807	692,292	189,436	1,048,657
제주	58	37,942	21,485	16,464	86,997	21,218	184,164

*광역시(서울특별시,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울산광역시)

출처: 국립농업과학원(2011:245-248).

한국의 국토 면적은 논 1,010,286ha(10.2%), 밭 726,512ha(7.3%), 임지 6,370,303ha(63.8%), 그리고 기타 1,882,641ha(18.8%)이다. 전체 토지 면적 가운데 경지 면적은 1,736,798ha로서 전국토의 17.4%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논 58.2%, 밭 41.8%이다. 전국에서 토지 면적이 가장 넓은 도는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순이다. 강원도의 총면적은 16,669,133ha로 남한 면적의 16.7%에 해당한다. 반면 경지 면적이 많은 지역으로는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이고, 강원도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경지 면적이 작다.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등은 논 면적이 밭 면적을 상회하였다. 반면에 강원, 충북, 제주 는 밭 면적이 논 면적보다 넓다.

특히 강원도는 대부분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체 면적 가운데 임야가 80.9%를 차지하고, 그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강원도 전체 면적 가운데 농경지 비율은 6.7%, 즉 111,647ha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논은 43,869ha, 39.3%이고 밭은 67,778ha, 60.7%이다. 강원도는 남한 지역의 행정구역 도들 가운데 농경지 비율이 가장 낮다. 특히 도별 전체 면적 가운데 논 비율은 화산섬 제주도와 도시 지역인 광역시를 제외하면 충청북도와 더불어 가장 낮다. 그러나 과수를 제외한 밭 면적에서 보면, 강원도는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밭 면적이 넓은 도로 밭농사가 농업의 중심을 이뤘다. 이와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상황은 강원도의 밭농사지대는 대체로 산간에 있다는 점이다.

볼 때 강원도 대부분은 산촌에 속하며, 강원도 농업은 바로 산촌, 즉 산간 지역이라는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강원도는 지형, 토양, 기후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함경도, 평안도 일부 지역과 더불어 한반도의 주요 밭농사 지역이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면서 강원도는 남한 지역의 대표적인 밭농사 지대로, 강원도하면 ‘찰옥수수’, ‘감자바위’, ‘막국수’, ‘고랭지배추’ 등을 떠올릴 만큼 주요 밭작물이 강원도의 농업을 상징하고 있다. 이 점은 조선 후기 유학자 우하영이 저술한 『천일록』에서 강원도 농업에 대하여 평가한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강원도) 농업을 보면, 농사짓는 땅이 대부분 산간 지대의 밭으로, 원주·횡성·춘천·철원 등의 고을은 넓은 평야가 있더라도 논이 극히 비싸서, 대농이라고 일컬어지는 집도 1섬지기가 안 될 정도이다. 모두들 파종을 하고, 모내기하는 경우가 적다. 궁박한 골짜기의 백성들은 논을 밭만 못하다고 여기고, 밭농사에만 전력한다. 화전은 1년 교대로 진전(陳田)과 기전(起田)을 바꾸어서 보리·귀리·조·기장·콩·팥·메밀 등을 심는다. 산골은 바람이 차므로 목면이 본디 흙의 성질에 맞지만, 오직 들 가까이에 있는 읍에서만 사이심기를 한다. 산골짜기에는 본디 황무지가 많아서 풀과 나무가 무성하고 뽕뽕하니, 목정밭을 불태우고 경작하고 파종하며, 모를 심고 김매기 할 때에 힘을 들이는 일이 많지 않다. 비록 도랑을 열어 논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도 버려두고 개간하지 않는다. 땅은 본디 자갈이 많고 메말랐으므로, 이른바 원전(元田)에서 수확한 것도 적다. 그러나 결부가 지극히 가벼워서 백성들이 전부(田賦)를 걱정하지 않는다. 영동은 지세가 모두 산을 따라가고, 바닷가에는 탁 트인 들이 있으므로 논이 많고 벼농사에 힘쓴다. 영동, 영서를 막론하고 밭은 모두 겨릿소를 쓴다. (...) 밭농사에만 주력하므로 밭곡식이 흉년이 들면 유리도산하는 근심이 다른 도의 배나 된다. 산밭에서의 파종은 4월마다 하는데, 만일 3~4월에 비가 자주 오면 화경(火耕)의 기한을 놓쳐 농사를 망치게 된다. 또 5~6월 사이 한 달 동안 장맛비가 오면 곡식이 모두 녹

아버린다. 이것은 모두 논농사에만 좋고 산골의 농사에는 해가 되니, 골짜기와 들의 농사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산과 들이 절반씩인 다른 도에서는 밭에서 흉작이면 논에서 풍작이고 논에서 흉작이면 밭에서 풍작이니, 오히려 농민은 이 때문에 살아간다. 강원도 산골만이 밭농사를 망치면 바로 유리도산하게 되어, 서울이나 어촌·농촌에 들어가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늘날 서울을 보면,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임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의 태반이 강원도 사람들이다(우하영, 2015-1:72).

강원도 시·군 가운데 철원, 고성, 양양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밭 면적이 논 면적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평창, 정선, 영월, 홍천, 인제군은 밭이 논보다 월등하게 많다. 철원평야, 문막평야, 홍천, 횡성, 춘천의 평탄지 및 동해안 일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밭농사가 생업활동의 중심이었다. 특히 영서 지역에서는 논이 귀해서 대규모로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드물었고, 이들도 이앙법보다는 직파법으로 벼농사를 지었다. 일반 농민들은 산간지대에서 화전을 일구며 밭농사를 지었다. 심지어 궁핍한 농민들은 논이 밭보다 못하다고 여기며 밭농사에 진력하기도 했다. 비록 토질이 좋지 않아 밭농사의 수확량이 많지 않았지만 세금이 적어 결코 전세를 걱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민들은 논 개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모내기과 김매기 등에도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흉년이 들었을 때였다. 강원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함께하는 영농, 즉 논밭병행영농이 이루어져 가뭄, 장마 등으로 말미암아 논농사 또는 밭농사가 좋지 않아도, 다른 하나의 작물 수확으로 한 해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강원도,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밭농사에 진력하였기 때문에 봄장마 또는 여름장마로 인하여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떠나 서울 등지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강원도에서는 밭농사가 한 해의 풍흉을 결정하고 주민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강원도에서 밭농사는 기본적으로 평밭뿐만 아니라 경사가 심하고 거친 토질의 산전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작물과 경작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밭농사의 돌려짓기(윤작輪作), 사이짓기(간작間作), 섞어짓기(혼작混作) 등의 발전은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 강원도 곳곳에서 행해진 다양한 작물의 조합에 바탕을 둔 돌려짓기, 사이짓기, 섞어짓기의 영농방식은 거리연장, 호리연장, 흘치(화중채) 인걸기 등과 같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농기구의 발달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가운데 거리연장이 있었다.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소 없인, 아니 쟁기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쟁기로 논밭을 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백두대간의 중추 가운데 하나인 태백산맥을 품고 있는 강원도는 자연환경으로 말미암아 최근까지도 쟁기 갈이가 이루어졌다. 한국 농촌은 1960년대 말을 지나면서 농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농번기에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에 대하여 농민들은 한편으로 노동력을 마을 단위에서 좀 더 조직적으로 조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다

4

‘밭갈애비’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여!

“쟁기질은 쟁기질꾼의 팔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쟁기로 논밭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밭갈애비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의 연장은 술받침, 즉 상(床)이 없는 무상형 선쟁기로 땅바닥과 만나는 술의 바닥면이 적어 그 어떤 쟁기보다 쟁기질을 하는 데 밭갈애비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같이농경에서 밭갈애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다음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쟁기는 한국의 재래농기구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또 널리 쓴다. 이를 다루는 농민의 기술도 매우 훌륭하다. 조작성은 간단하고 구조는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며 능률도 비교적 크다. (...) 한인(韓人)들의 쟁기 부리는 재간은 참으로 놀랄만하다. 어떤 쟁기든지 혼자 다루며, 소의 코뚜레도 필요치 않다. 강원도에서는 45도 이상의, 본인이 기어오르기 어려운 정도의 비탈을 겨리쟁기로 자유로이 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 또한 큰 돌이 깔린 밭에서도 교묘하게 부러

서 한 번 치갈고, 한 번 내려갈았다. (...) 특히 교묘하게 쟁기를 만곡(彎曲)시켜 진행시키고 가장자리 휴반(畦畔)에 접한 부분까지 한 치도 남기지 않고 가는 것이 보통이다. (...) 삼각의 논은 세 외변을 따라 삼각형으로 쟁기질하고 사각형의 논은 네 외변을 따라 사각형으로 쟁기질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쟁기갈이의 교묘함과 그 보급은 도저히 일본과 같은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小林房次郎·中村彦, 1905, 김광언, 2010:40 재인용).

일제의 식민지 정책 수립과 농업 수탈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한반도의 농촌 곳곳을 조사했던 초기 일본 학자들은 조선의 농촌, 특히 농기구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다. 그런 일본 학자들도 “농구는 대단히 불완전(?)하지만 쟁기를 소에 매워서 부리는 기술은 일본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온다습한 기온과 진흙성 토양에 수도작이 발전한 일본에서는 팽이를 이용한 갈이가 일반적이었고, 쟁기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쟁기도 유상리(有床犁, 늪쟁기 또는 굽쟁기)가 대부분이었다. 술받침이 있는 유상리는 무상리(無床犁, 선쟁기)에 비하여 논밭갈이 작업과정이 단조로워서 밭갈애비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강원도처럼 돌, 나무뿌리 등이 뒤섞인 거친 토양에서는 유상리가 아닌 선쟁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 강원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선쟁기형 연장은 보습이 거의 직각으로 땅에 닿고 돌, 나무뿌리 등에 걸리면 쟁기가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밭갈애비가 소의 끄는 힘에 맞추어 쟁기를 들었다 놓기를 되풀이하여야 했다. 술받침, 즉 상(床)이 없는 선쟁기는 땅바닥과 접하는 술의 바닥면이 하나도 없어 그

어떤 쟁기보다 쟁기질하는 데 발갈애비의 역할이 중요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같이 환경에서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 때로는 연장을 밀어주고, 때로는 눌러주고,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돌려주며 부림소와 호흡을 맞추어야 했다. 이 호흡의 정도에 따라 논밭갈이의 성과가 달라졌다. 유상리에 의한 쟁기질에 익숙한 일본 학자의 눈에 소와 쟁기 그리고 발갈애비가 일체가 되어 보여주는 조선 발갈애비들의 역동적인 같이 모습은 신기하게 보였을 것이다. 무릇 우경의 중심은 발갈애비였다. 발갈애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기간 쟁기질을 해야만 숙련된 발갈애비가 될 수 있었다.

배영동(2003)은 농민들이 농업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연령별,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쟁기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농민 사이에서 어떤 위상과 의미를 지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농업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문화전승 행위로 보고 한 사람이 원숙한 농민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단계는 보통 10여 살 때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쉽고 간단한 일을 심부름하며 어깨너머로 농사일을 익히는 시기이다. 2단계는 10대 중반으로 쟁기질과 같은 아주 힘든 일을 제외하고 직접 일을 해보며 궁급하거나 일이 잘되지 않으면 어른들에게 질문하며 착오를 바로잡는, 즉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가르침을 수용하는 시기이다. 3단계는 보통 17~18세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법 성숙하여 농사일하는 데 별반 무리가 없어지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농민으로 독립하는 시기이다. 이 시

기 청년이 독립된 성인 농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는 ‘들돌’ 들기와 같은 공개적이고 의례적인 검증을 거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쟁기질(특히 무논같이), 씨레질, 논매기와 같은 중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평가받았다. 이때부터 다른 농민들과 동등하게 품앗이 또는 두레의 성원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농민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흔히 이 시기에 분가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였다. 4단계는 독립된 농민이 자기 나름대로 비법을 창안하고 실천하여 원숙한 농민으로 거듭나는 시기이다. 이때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농경의례, 농경유희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익숙하여 자발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배영동의 연구에서 보이듯이 한 사람이 독립적이고 원숙한 농민으로 거듭나는 변곡점에 쟁기질 능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독립적인 농민이 반드시 습득하고 있어야 할 쟁기질 능력은 지역의 농사환경과 농경방식에 따라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

1 발갈애비 호칭의 지역별 특성

농사꾼에게 일소와 연장을 다루는 일은 기본이었다. 그렇지만 농사꾼이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또한 연장을 다루더라도 경작지에 따라 특정한 기술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마을마다 특별하게 이름난 발갈애비가 있기 마련이었다.

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났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강원도 지역별 논밭갈이 하는 일꾼 호칭

	면	리	논밭	씨레	
화천	사내	광덕	밭갈애비, 경부		신현규(1926년생)
	간동	오음	밭갈애비, 쟁기질꾼	씨레질꾼, 쟁기질꾼	홍대형(1928년생)
인제			밭갈애비	성군	
	읍	원대	소애비, 밭갈애비	선군	심흥규(1936년생)
	북	원통2	보애비, 소애비	성군	김이준(1938년생)
	상남	김부		성군	고석환(1939년생)
양구	읍	월명	보애비	선군	최현재(1950년생)
	해안	현리	보애비, 소애비	선군	최창화(1931년생)
춘천	사북	신포1	밭갈애비		황병연(1939년생)
	서면	월송1	경부꾼, 밭갈애비	경부꾼	이진수, 이한중(1938년생)
	북산	내평	보애비, 밭갈애비		박광순(1934년생)
	동내	사암	밭갈애비		최봉규(1930년생)
	동산	봉명2	밭갈애비, 심일꾼	심일꾼	박은배(1936년생)
홍천	내	광원	밭갈애비, 보애비	성군	김승문(1937년생)
	내촌	답풍	쟁기(질)꾼, 밭갈애비	성군	허주봉(1932년생)
	두촌	자은2	밭갈애비	성군	강영석(1935년생)
	서석	어론2	밭갈이쟁이	성군	허남윤(1936년생)
	화촌	장평1	쟁기질꾼	씨레질꾼, 성군	지기복(1935년생)
	동	신봉	쟁기꾼, 탑손쟁이	심일꾼	이우열(1955년생)
	북방	장항	소애비, 심일꾼, 쟁기꾼	심일꾼	정순현(1956년생)

	면	리	논밭	씨레	
홍천	서	모곡3	신일꾼, 정부질꾼	신일꾼	박수영(1938년생)
	서	대곡	신일꾼	신일꾼	신재덕(1933년생)
	남	유치1	심일꾼	심일꾼	윤오석(1946년생)
횡성	읍	추동	밭갈애비, 쟁기질꾼	선군	김장섭(1937)년생
	우천	추동	성군	성군	김철수(1937년생)
	서화	석화	신일꾼	선군	길경순(1940년생)
	둔내	우용	보애비	선군	오복환(1934년생)
	둔내	삼교	심일꾼,선군	심일꾼,선군	윤만옥(1925년생)
	서원	압곡	신일꾼	신일꾼	허성욱(1945년생)
원주	흥업	대안3	심일꾼	심일꾼	정문선(1938년생)
평창	진부	두일	밭갈애비	선군	함명호(74세)
	방림	계촌4	쟁기잡이, 밭갈애비	성군	전근택(1964년생)
정선	임계	용산1	밭갈애비	선군	박종대(1937년생)
	임계	낙천1		선군	이응철(1923년생)
영월	주천	도천	농군	성군	송덕수(1938년생)
고성	거진읍	화포	선군	선군	윤상규(1933년생)
	죽왕	왕곡	선군	선군	함승본
양양	현남	입암		선군	전주한(1926년생)
	현북	법수치	소애비	성군	김주기(67세)
강릉	학산	학산	밭갈애비/선군	선군	윤홍용(1925년생)
삼척	미로	내미로	밭갈애비		심성환(1938년생)

강원도 언어지도를 연구했던 이익섭(1981:71 참조)은 “쟁기 또는 극쟁이를 모는 사람에 대한 표준어휘가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하였고, 아예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고 하였다. 이는 강원도에서 논밭을 가는 사람 또는 논을 삶을 사는

사람 등을 지칭하는 용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는 밭갈애비, 보애비, 성군, 신일꾼, 쟁깃군 등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했고, 필자도 위 표에서 보이듯이 경부(耕夫), 보애비, 밭갈애비, 신(심)일꾼, 선(성)군/성군, 쟁기질꾼 등을 확인했다. 이 용어들은 각기 다른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논밭을 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는 것이 ‘쟁기질꾼’으로, 말 그대로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다. 이는 쟁기, 특히 호리쟁기를 표준으로 삼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쟁기, 쟁기질, 쟁기질꾼 등의 용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연장보다는 쟁기의 의미에 익숙한 필자는 초기에 인터뷰를 할 때 쟁기질꾼을 표준어로 삼아 “이곳에서는 쟁기질꾼을 뭐라 하나요?”, “쟁기질 잘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또는 “쟁기질꾼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나요?” 등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익섭(1981:71)에 따르면, “‘쟁깃군’은 강원도 거의 전역에 있는데, 새로운 형태로 밭을 붙여 가는 듯이도 보이나, 그렇다면 쟁기나 극쟁이를 ‘쟁기’라 부르지 않으면서 ‘쟁깃군’을 받아들인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쟁기’를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쓰던 원주가 ‘쟁깃군’을 전혀 안 쓰는 몇 안 되는 지역임도 꼭 기이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쟁기질꾼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강원도에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이익섭의 ‘쟁깃군’에 대한 분석은 아마 강원도에서 쟁기질꾼이 다른 지역

다양한 이름으로 달리 불린다. 각 용어들의 의미와 지역적 분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호칭과 관련해서, 논·밭가는 일을 하는 사람과 논을 삶는, 즉 씨레일을 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부르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호칭이 나뉘는 경우는 강원도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인제, 양구를 비롯하여 영동 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논밭을 가는 사람은 보애비 또는 밭갈애비, 논을 삶는 사람은 성군 또는 선군으로 구분하여 부르는 편이었다. 그 구분의 중심에는 선군 또는 성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논밭 가는 사람과 논 삶는 사람을 달리 부를 때, 짝을 이루는 용어는 보통 보애비 또는 밭갈애비와 선(성)군, 신일꾼과 선(성)군 등이며, 그 가운데 보애비 또는 밭갈애비와 선(성)군이 널리 사용되는 편이었다. 특히 강원도에서 논을 삶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군 또는 성군이었다. 김진순(1995)은 농민들이 선군/성군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사실 농민들은 습관처럼 사용한 만큼 명확하게 유래나 의미 구분을 하지 않는 편이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 선군(先君) 또는 ‘옳음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 성군(聖君)으로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군이 사람에 따라 선군 또는 성군으로 달리 불리는 듯하다. 선군은 ‘앞서 일하는 사람’으로 모내기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선군은 모내기하기 전에 논을 삶는 사람들로, 대부분은 논 삶는 사람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박희영은 씨레 탐손을 잡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 흙덩어리를 부수고 고르는 쇠스랑꾼까지도 선군이라고 하였다. 모내기를 위해서는 씨레질과 번지질로 논흙을 잘게 부셔서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하여튼 선군이 얼마나 논을 빠르게 잘 삶고 논바닥을 고르느냐에 따라 모내기의 성과 나아가 수확량이 달라졌다. 따라서 논 주인은 뛰어난 선군을 모셔오려고 노력하였고, 모꾼 등 다른 일꾼보다 특별한 대우를 하였다. 한마디로 선군은 일꾼 가운데 으뜸이어서, 성군(聖君)이라고도 불렸다.

이한길(2009:179 참조)은 성군이라는 용어는 양양, 고성 지방에서 즐겨 쓰는 용어인데, 인제군에서도 발견이 되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양양지방에서는 소를 몰면서 부르는 소리를 ‘성군소리’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 그의 말처럼 대체로 성군이라는 용어는 영동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성군’은 공존 형태로이긴 하나 고성, 양양, 강릉에만 나타난다”고 한 이익섭(1981:71)의 이야기에 서도 확인이 된다. 그렇지만 선군 또는 성군이라는 호칭은 양양, 고성과 인제 지역 외에도 양구, 횡성, 홍천 등지의 영서 지역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선군은 고성, 양양 등 영동 지역에서는 논밭갈이와 씨레질을 잘하는 사람을 동시에 지칭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논을 잘 삶는 사람을 일컫는다. 따라서 선군이라는 용어는 보통 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것 같다.

논밭 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름 가운데 강원도에서 가장 널리 불리는 것이 밭갈애비와 보애비이다. 밭갈애비는 ‘밭을 가는 사람(애비)’라는 의미로, 용어 자체에 ‘밭’이라는 경작지가 지칭 되어서 그런지 논을 삶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밭갈애비 용어는 인제, 화천, 춘천, 횡성, 홍천, 삼척, 정선 등을 비롯한 지역들에서 가장 널리 불리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호칭이 심(신)일꾼이다. 심일꾼은 ‘심든’, 이른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심일꾼이라는 호칭은 밭갈애비와 달리 대체로 논·밭갈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논을 삶는 사람 모두를 일컫는 편이다. 이는 심일꾼이 밭갈애비와 달리 경작지에 상관없이 ‘심든’(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일꾼은 홍천, 횡성, 원주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과 인접한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 등지에서도 사용한다.

다음은 보애비 또는 보갈애비이다. 보는 ‘쟁기’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애비는 보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김진순(1995:25)이 언급한 보갈애비 호칭을 필자는 들을 수는 없었지만, 보애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라고 본다. 보애비는 대체로 춘천, 양구 등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호칭 가운데 독특한 것이 경부(耕夫) 또는 경부꾼이다. 이 호칭은 ‘경작하는 사람’의 한자어로 화천군 사내면, 춘천시 서면 일대에서 사용되었다. 이 말은 이들 지역과 인접한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김광언, 2010:228)와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

리(김광언, 2010:261)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서도 밭가는 사람을 경부라고 하였다(고광민·강봉석, 2009:235). 이것으로 보아 경부(꾼)라는 호칭은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많이 사용된 듯하다.

쟁기질꾼은 횡성 등지의 영서 남부 지역, 특히 호리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논밭 가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와 관련하여 함경도 지역에서는 가대기 손잡이를 잡는 사람을 보통 지탑꾼[起耕手]이라고 한다. 아마 지탑꾼은 탑손을 잡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강원도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없었다.

논밭갈이 하는 사람과 논 삶는 사람을 일컫는 호칭의 지역별 분포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여기에서 호칭의 지역분포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이 지역분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한 어휘와 의미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서로 공유되는 것으로,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의미와 상징체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이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교류하며 일상을 함께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별 분포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대체로 시장권과 맞물려 있으며, 때로는 노동조직, 혼인 등을 통한 인적교류 등이 이루어졌다고 추측된다. 호칭의 지역별 분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생활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연장은 열다섯부터 배우셨어요?) 발 가는 거, 열다섯, 어떻게 배웠는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소가 다친다고 못 갈게 하더라구. 옛날 발이라 통 힘들어, 새추발. 새추라고 역새. 아니 그게 드문드문 났는데 아버지가 갈다가 내가 가니까 आय 힘들더라구. 그때부터 내가 어른한테 혼나면서 배웠지. (뭐 때문에 혼나셨어요?) 첫 번에 갈 적엔 소 다친다고, 소 다치지, 잘못하면 아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는데. 나도 몇 번 소를, 소가 절뚝절뚝하고, 아무리 잘 가는 사람도 돌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소가 지랄을 하면 경충 뛰는데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고, 소가 뛰면은, 점점 소가 뛰지. 저 죽는 줄 모르고 뛰는 거야. (그럼 몰래 배우신 거네요?) 아 몰래 배웠지. 아 “이놈 새끼가 소 다친다”고, 소가 다치면 농사를 못 짓거든요(이병인, 1940년생, 홍천군 내촌면 도관3리, 2011.12.3.).

밭갈이에서 고랑을 켤 때는 고랑이 깊고 똑바로 켜져야 작물을 심기 편하고, 또한 김매기와 조화중(조 사이짓기), 콩팔대우치기 등이 쉬워졌다. 그런데 고랑을 꼬불꼬불 켜면 다시 고랑을 곧게 켜야 했다. 부림소 한 마리가 방금 켄 고랑을 밟고 가면서 중심을 잡기 때문에 비뚤어진 고랑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켜지는 고랑 모두가 꼬불꼬불해지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거친 토양에서 연장이 튀면서 보습이 부림소의 발뒤꿈치를 치게 되면, 부림소가 연장을 끌 수 없어 한 해 농사에 지장을 줄 수 있었고, 심지어 집안 재산 목록 1호인 부림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익숙한 밭갈애비는 연장의 탐손을 다른 사람, 특히 초짜에게 쉽게 말기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런데도 초짜들은 자신의 아버지 등 나이 든 어른들과 함께 일하면서 혼도 나며 밭갈애비의 길에 들어섰다. 그래야만 제대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농사꾼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

군대 갔다 와 가지고서도 일꾼 두고 하다가 내가 한 30살 정도 돼서 농사를 시작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농사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흥천서 이제 학교나 다니고 그랬지 농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여기 와서 여기도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난 그 당시에는 농사를 몰랐죠. (...) 그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일꾼살이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시대가 변천되다 보니까. 남의 일꾼살이를 안 하거든. 천상 이걸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으니,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니까. (...)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줄 모르니까. 나도 처음에 애먹었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농사일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공부 안 하고 일을 하고, 나 같은 경우는 늦게 가서 일을 배우려니까 누가 그것도 그 품앗이라고 있어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품앗이를 안 해주거든, 일을 할 줄 모르니까. 그래 처음엔 나도 그 일 배울 적엔 고생 좀 했어요. 모를 심을 줄 아나, 밭을 갈 줄 아나(허남윤, 1936년생, 흥천군 서석면 어론2리, 2012.1.11.).

농촌에서 남자는 연장의 탐손을 잡을 수 있을 때 한 사람 몫을 하는 농사꾼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마을에 따라 들들을 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 사람 몫을 하는 농사꾼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들들을 드는 것이 한 사람 몫의 노동력을 지녔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면, 진정한 농사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연장 탐손을 잡고 논밭갈이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다고 할 수 있다. 논밭갈이를 하는 정도에 따라 품앗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품값도 정해졌다. 인제군 기린면 오류동에서는 머슴을 들일 적에 쟁기질 솜씨에 따라 상머슴과 허드레머슴을 가렸다. 나아가 장가를 들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로 쟁기질을 꼽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쟁기질이 성인 남자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잣대 구실을 한 셈이다(국립민속박

물관, 2000:62~63). 누구나 인정하는 밭갈애비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배영동(2004)은 경상북도 의성의 농촌에서는 한 사람이 농민으로서 독립하는 데 거의 10여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근대 농민들을 조사해 보면, 사소한 일부터 중노동에 이르는 농사 일을 배워서 공동협업노동에 참여하고, 농부로 독립하기까지에는 10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독립된 농부가 되는 중요한 기준은 소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지 여부이며, 10대 초반부터 농사일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20-22살이 되어서야 농부로서 독립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농부로서 독립하는 데는 거의 10여 년 가까운 기간의 수련이 필요하였다(배영동, 2004:289).

의성지역에서는 소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지가 독립된 농민이 되는 기준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논밭을 갈 수 있어야 비로소 다른 밭갈애비의 일정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에 맞추어 농사력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점은 강원도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강원도는 호리소가 아닌 겨리소이기 때문에 일을 좀 더 배우는 데 시간과 힘이 더 들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정확한 소요 시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여튼 겨리연장의 탐손을 잡고 5~10여 년이 지나는 20대 중후반이 되면 논밭갈이를 잘할 수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논밭갈이라고 하여도 배워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처음 탐손을 잡은 사람들은 첫 멩에를 멘 부림소처럼 평평한 밭, 이른바 평밭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언제 부친 대신 처음으로 탐손을 잡으셨습니까?) 스물아홉, 스물한 대여섯? 그 여기 그 전에 조그만 사람들, 저거 뭐야, 애들이 잡고 다녔었어, 한 열댓 살 먹은 애들이. (...) 그때 아버님이 가르치느라고 인제, 나를 가르치느라고 (집)앞에 편한 데서, 이제 하기 나쁜 데는, 비탈은 아버님이 하시고, “너도 해봐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땀이 뻘뻘 나고 쫓아가지 못해. 요령이 없으니까. 고랑을 똑바로 켜랬더니. (소들이) 사람을 알아. 여자가 저거 해도, 소도 남자가 끌어야지, 여자가 끌면 말을 더 안 들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모르지. 여자가 소 끌면 소가 말을 안 들어. 그래 선수가 잡는 거하고, 초보자 잡는 거하고 벌써 소들도 알아보겠지, 그건. (소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글세 고랑에, 요령이 없으니간은, 버섯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고랑이 꾸불꾸불해지고, 그러니까 첫 고랑을 똑바로 켜줘야지만, 소가 그 고랑을 타고 쪽 나가 고랑이 바로 되는데, 이게 뺄뺄뺄하니까 소가 고랑을 제대로 그 고랑을 찾아가질 못하는 거죠. (첫 고랑이 일단은 반드시 나가야?) 그다음 그 고랑을 타고 나가거든. (...) (언제부터 고랑이 조금 제대로 잡힌 거 같습니까?) 그것도 한 1년 지내야 그게 제대로 되지. 근데 뭐 소를 계속 가나 그거를. 봄같이만하고 이제 뭐 곡식 심을 때는 저거 하지, 여름이야 손 놀리지 뭐 가나? 가을이야 보리 심고 밀 심고 이럴 때(박인영, 1946년생, 흥천군 동면 신봉리 궁터, 2012.3.6.).

밭갈애비들은 평밭갈이, 화전갈이, 논 아이갈이, 씨레질 등의 농경작업 가운데 평밭갈이를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처음 탐손을 잡은 밭갈애비에게, 이른바 초짜라고 무시하는 부림소를 다루며 평밭에서 고랑을 켜는 일도 쉽지 않았다. 특히 밭갈이에서는 첫 고랑을 얼마큼 똑바로 켜느냐가 중요했는데, 첫 고랑은 꼬불꼬불해지기 일수였다. 물론 점차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고랑도 똑바로 켜졌고, 그렇게 밭갈애비가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독립적인 밭갈애비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정이 너무도 많았다. 논 아이갈이와 씨레질, 작물에 따

른 다양한 방식의 밭갈이, 비알밭의 화전갈이 등을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밭갈에비라고 한다면 화전갈이와 논 삶기를 할 줄 알아야 했다.

(2) 화전갈이: ‘너~ 화전 갈아 봤어.’

강원도에서 농사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화전(火田)이다. 화전은 오늘날 자취를 완전히 감추었지만, 강원도는 산악지대가 많아 논보다 밭이 월등히 많았고, 무엇보다 산악의 비탈면을 활용한 화전이 성행했다. 화전은 처녀지나 휴경지에 나무와 풀을 베고 불을 놓아 타고 남은 재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사법으로, 불을 이용한다고 하여 ‘불전’이라고도 하였다. 화전은 한반도에서 원시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후기의 곡식인 피와 조를 재배하는 주 농경 방식이었다. 한국의 화전농업은 건기(乾期)와 우기(雨期)가 뚜렷한 한반도의 온대습윤기후에 맞게 적응하여 더욱 발전된 휴한농법이자 연작기술을 받아들인 하나의 농경 방식이었다. 한국의 화전농업은 열대·아열대의 화전농업과 경작순서(별채·건조·화입·파종·재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편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화전농업은 소로 경작하고, 밭벼[陸稻]보다는 조, 콩, 팥, 옥수수, 메밀 등 잡곡 작물을 돌려짓기하거나 사이짓기를 하고, 경작 기간이 길고, 정주성(定住性)이 강하다는 점에서 열대·아열대 화전농업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강원도에서도 화전민들은 경



그림 7 발갈이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김흥서(2010.4.19.)



그림 8 발갈이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 윤문중(2010.5.29.)

사가 심한 산지에 불을 놓고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겨리로 화전을 일구었다. 이는 조선 시대에도 크게 다름이 없었던 듯하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산에 일군 농지가 도처에 있는데, 논으로 쓰든 밭으로 쓰든 비옥함이 평야보다 나은 곳도 있다. 그 가운데 산의 높은 봉우리나 험준한 비탈에 불을 질러 농지를 만든 곳은 다락밭[梯田]처럼 층층이 되지 못하여 한쪽 무릎을 꿇고서 경작한다. 1년 농사짓고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산화전(山火田)이라 한다. 이것이 불박이로 농사짓는 다락밭과는 다르다. (...) 내가 예전에 산골짜기를 지난 적이 있었는데, 밤새 생긴 안개가 계곡에 가득 찼다. 그때 간간이 소몰이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오는 듯하였는데, 소에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말하는 것이 어린 자식을 타이르는 것 같았다. 안개가 걷힌 해 질 녘에 비로소 보니 양쪽의 산과 준엄한 벼랑이 하늘에 꽂힌 듯한데, 농부가 두 마리 소를 나란히 멍에에 메워 아직도 흰 구름을 두른 높은 곳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 일망하니 아득하여 나도 몰래 몸이 떨리고 마음이 서늘하여지는 위태로운 곳이었다. 그 광경을 아득히 멀리서 바라보자니, 나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오고 속이 서늘해졌다. 이는 대개 위태롭게 보였기 때문이다. 종일 지나가면서 곳곳이 이러함을 알고서 또한 다소 안심되었다(박지원, 『課農小抄』, 「田制」(四十一), 서유구, 정명현·김정기 역, 2008:170~173).

박지원이 살았던 18세기 말에도 “일망하니 아득하여 나도 몰래 몸이 떨리고 마음이 서늘하여지는 위태로운 곳”이라고 표현한 비탈진 화전에서 소 두 마리로 경작을 하였다. 보통 밭보다도 경사가 심해서 조금만 실수해도 소와 사람이 밑으로 굴러사가 날 정도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몸이 떨리고 마음이 서늘해지게 하였다. 이런 곳에서 우경은, 그것도 두 마리 소를 메워서 쟁기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을 아니었음에도, 박지원이 언

급한 것처럼, 당시 산간 지역의 이곳저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강원도에서는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이 이뤄지기 전까지 화전이 널리 행해졌고, 겨리소로 화전을 가는 일도 발갈 애비가 배워야 할 최고의 기술이었다.

평발은 그냥 놓고먹기죠, 왔다 갔다. (아이논은요?) 아이논도 그렇죠, 논 편해서 하는 거야, 뭐 힘 안 들죠, 뭐. (화전발, 논아이갈이, 씨레질 중에 어느 게 더 힘든니까?) 화전발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왜요?) 아이 그게 저 화전발은, 그 전엔 이렇게 처음에 일굴 적엔 남구 [나무]를 깎아서 막 이렇게 해서 불을 해 놓잖아? 불을 해놓고, 그 그 루터기가 많잖우? 그 그루터기가. 그 소로다가 내려칼이[내려갈기] 하다가 소 방대이 뿌리 이게 막 굽히면, 이거 지긋지긋해서 그거 꽤 낚야지, 이러니깐 더 힘들지. 그러니까 소가 잔뜩 잡아당기길 하지, 이렇게 툭 튕기러지면[튀겨나오면] 소가 앞에서 폭 엎어지지. (보습이 나무뿌리에 걸렸는데 갑자기 빠지면 소가 엎어지고?) 그렇지, 폭 엎어지지. 갑자기 이게 쪽 빠져버리니까 힘을 주고 잡아당기던 녀석이 폭 엎어지지. 이 지긋지긋한 방대이 뿌래기에도 툭 뿌러지면 힘을. (쟁기도 많이 부서졌겠습니까?) 아이 많이 부서지죠, 그저 뭐 이제 모로리 같은 게 이게 부러지고 뭐, 쇠버섯[쇠보습]같은 거 가지고 갔다간, 그전엔 뭐 무쇠버섯을 나왔잖우? 그 구워가지고, 그제 잘 깨져요. 이게 뭐 조금만 툭 치면 깨지고(강영석, 1935년생, 홍천군 두촌면 자은2리, 2012.1.31.).

(평발 갈 때와 화전 갈 때, 좀 다른니까?) 그렇죠. 화전은 아무래도 경사 이렇게 비탈에 같으니깐. 참 그런 데 하던 사람은, 이런 데는 평지에 갈던 사람은 그런 데 못 갈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대 이 돌도 뭐 돌다물[돌무더기]도 있고, 뭐 돌도 큰 게 있잖아요. 소가 그냥 게워나가는 것도 있고 이거 뱅뱅 돌려 갈아야 돼요, 돌다물로는. 그러기 때문에 연장도 다루기가 힘들죠. (최전순: 그 연장질이 엄청 힘들어요. 나도 들어봐도 연장을 못 들어요, 무거워서.) 그리고 소가, 또 이놈의 소가 또 막 날뛰면 이 돌에 걸렸다 하면 이 부러지는 거예요. 두 마리가 내치니깐 뭐 보습도 부러지고 그런 경우도 있

게 되면(김완달[1938년생]·최전순[여, 1946년생] 부부, 홍천군 내
면 광원리, 2012.1.12.),

화전은 첫 화전을 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나무뿌리, 그루터기 등이 썩고 부드러워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었다. 돌과 나무뿌리가 많고 비탈이 심한 화전 밭에 겨리연장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또한, 화전에는 숨겨진 돌과 나무뿌리가 많아서 연장으로 갈 때 보습이 장애물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보습이 장애물에 걸리면 빨리 연장을 들어 올리거나, 연한 나무뿌리의 경우에는 날이 잘 선 새 보습, 이른바 날포보습을 옆으로 엇비스듬하게 하여 자르고 지나가야 했다. 이것이 기술이었고, 이를 잘하고 못하느냐가 뛰어난 밭갈에 비를 가르는 기준이었다. 밭갈에비가 제때제때 나무뿌리나 돌에 걸린 쟁기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소가 그대로 끌고 나가게 되어 보습이 깨지거나, 심한 경우에는 쟁기 자체가 부서지기도 했다. 화전갈이를 배우려면 연장 한두 개쯤 망가뜨리는 것은 기본이었다. 이 또한 화전갈이를 배우는 과정이었다. 연장은 부서지면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화전 갈면서 연장이 부서지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부림소가 자신의 힘에 눌러서 앞으로 고꾸라졌고, 또한 돌을 잘못 밟아 미끄러지기도 했다. 집 앞에 있는 앞산의 비탈밭은 모두 갈아봤다고 할 정도로 마을에서 이름난 밭갈에비였던 위 사례의 강영석도 “한번 굴렀지. 이놈의 소가 어떻게 바람이 나가지고선 내려 굽적 되서 아주 연장을 끌고서 내려 달리는

데 소 잡을 뻔했어요”라고 말했다. 아무리 노련한 발갈애비라도 돌도 많고 비탈진 화전에서 연장을 부서뜨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부림소와 함께 밀로 구르는 일도 한두 번씩 경험했다. 소가 집안에서 큰 재산이었던 시절에 화전 갈다가 부림소가 다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부림소를 구하려다가 사람이 다치는 것은 더욱더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예컨대 화전을 갈면서 소나 발갈애비가 조금이라도 한눈팔면 굴러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따라서 화전에서 쟁기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노련한 발갈애비가 아니면 화전갈이는 꿈도 꾸지 못했다. 나아가 화전갈이 자체가 워낙 힘들어서 발갈애비뿐만 아니라 소도 화전갈이를 해본 능숙한 소여야만 일을 할 수 있었다. 최현재(1950년생,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2016.3.8.)는 부림소도 “오래 부려서 사람 같은” 소가 아니면 화전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했다. 무릇 화전갈이는 어떤 갈이보다도 힘들고 위험해서 보통 발갈애비는 쉽게 덤벼들지 못했고, 이른바 최고의 발갈애비와 부림소 그리고 튼튼한 연장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행해지는 강원도 산촌 농민들의 자존심이었다.

(3) 씨레질과 성군

화전갈이와 더불어 발갈애비가 하는 농경작업 가운데 최고로 치는 것이 논 삶는 일, 이른바 씨레질이였다. 씨레질은 모내기 바로 직전에, 갈이를 할 때 만들어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숴 부드럽게 하고 논바닥을 평평하게 다듬는 일을 일컬었다. 이래

야만 모내기가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논물을 빠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잡아둘 수 있었다. 발갈애비라도 씨레질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씨레질은 상당한 기술을 요구하였다.

아휴 우린 힘이 약해 (씨레질은) 못 하겠더라구요. 요령을 알아야지 요령을 모르니까 못 하겠더라구요. 그게 가는 방식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삶지, 가는 방식을 모르니까 못 살고, 그 씨레야 흙이 꼭 째기니까 꿈쩍을 못 하겠더라구. 나도 군인 가기 전에 어른들이 살는데 나도 살아본다고 들어가서 소를 모니까 소가 가지도 않더라구요. 들어가보니까, 그래서 억지로 때려 가지고 한 두어 발 나가니까 씨레에 흙이 콕 채였는데, 아이구 안 되더라구요. 그래 요령을 알아야 살겠더라구요. 그래서 난 논은 안 살아봤어요. 갈아 놓구 조그만 다랭이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해봤지만, 그렇게 큰 '갈' 넣고 이러는 건 안 해봤어요. 저는 씨레질을 잘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고석환, 1939년생, 흥천군 내촌면 와야2리, 1996년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에서 이주, 2012.1.27.).

씨레질은 모내기하기 편하도록 논흙을 잘게 부수고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이 목적이어서 가능하면 여러 번 삶는 것이 좋았다. 따라서 성군이 '제누리(새참)'를 먹으며 쉬는 중간에 누군가 서툰 솜씨라도 한 번 씨레질을 해 주면 고마워할 일이고, 성군은 마무리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씨레질을 배울 때는 초짜라도 화전갈이보다 탐손을 잡을 기회가 많았다. 무엇보다 초짜 발갈애비가 비탈밭에서는 무서워서 탐손을 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평평한 논에서는 탐손을 잡는 것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탐손을 쉽게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씨레질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해서 뛰어난 씨레질꾼,

이른바 성군이 되기는 어려웠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겨리소로 받을 같았던 고석환도 다랑논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씨레질을 해봤지만, 갈 거름을 넣은 논에서는 요령을 알지 못해 제대로 된 씨레질을 할 줄 모른다고 했다. 강원도에서 씨레질하는 요령의 기본은 갈지(之)자 씨레질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갈지자예요. 원칙은 갈지자인데, 논 형태에 따라서 그걸 변형을 해서 쓰는 거죠.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두 번, 좁은 다랭이는 두 번은 나간다. 그럼 뒷두령으로 해서 그걸 앞두령으로 계속 갔다 놓고 이런 거지. 원칙은 갈지자예요. (용씨레 얘기를 하던데, 그건 뭐 말입니까?) 그게 이제 좁은 다랭이에서 쓰는 거죠. 좁은 다랭이에서 그 돌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걸 그렇게. 그러니까 똑바로 안 갈고 양쪽으로 가면서 뒷두령에서 파서 앞두령에 놓고, 또 놓고 들어갈 때는 살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흙을 실어다 앞두령에 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삼는 거죠. 삼을 때, (...) 갈지자가 안 되니까(박동수, 1960년생, 흥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2017.8.17.).

씨레질은 갈이와 달리 골과 두둑을 형성할 필요가 없지만, 논 흙을 빠짐없이 잘게 부수면서 평평하게 고르는 역할을 하는 씨레바탕이 쟁기의 보습보다 훨씬 좌우로 길어서 회전반경이 넓었다. 따라서 씨레질에서는 씨레에 연결된 소가 회전하기 좋은 방법으로 씨레질의 동선을 잡는다고 하였다(배영동, 2002:48 참조). 씨레질 방식, 이른바 ‘문서’라고 하는 것은 논배미가 넓고 모양이 네모지고, 또한 물이 풍부하게 담겨있는 ‘정상 상태’에나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정상’의 상황에서는 흙을 잘게 부수고 논바닥을 평평하게 하고자 하는 씨레질의 목적에



그림 9(위) 그림 10(아래) 흥천군소모는소리보존회 서울 한강노들뚝밭 썩레질시연, 2016.5.28.

씨레바탕이 넓은 씨레로 왕복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곱썰기’는 시계방향으로 돌아나가면서 한다. 씨레질의 순서는 ‘곱썰레질’이 먼저이다. 앞뒤로 먼저 ‘곱썰기’를 한 다음 ‘장썰기’로 씨레질을 마감한다(김재호, 2004:132 참조). 정리해보면, 안동 지역에서 씨레질은 두 단계를 거쳐서 행해졌다. 먼저 곱썰레질로 흙덩이를 잘게 부수어 부드럽게 한 뒤에, 장썰레질로 울퉁불퉁한 논바닥을 평탄하게 골랐다. 곱썰레질과 장썰레질의 두 방식을 결합하면 이른바 사귀어치기 방식이 되었다. 또한, 사귀어치기와 더불어 논두렁 옆을 따라 빙빙 돌아 가운데로 들어가며 삶는 ‘돌아치기’ 방식이 행해졌는데, 십자 씨레질 방식을 하기 힘든 논에서는 그냥 지그재그로 오가며 씨레질을 하는 용썰레질 방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 주로 행해진 갈지자 씨레질 방식도 빈틈없이 흙을 잘게 부수고 평평하게 고르는 씨레질의 기본원리와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담고 있다. 먼저 사귀어치기가 곱썰기와 장썰기를 결합한 것과 달리 갈지자 씨레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씨레질 방식이었다.

여기에서 사각형 논배미를 중심으로 설명해보겠다. 시계방향으로 논두렁을 a, b, c, d라고 명명하겠다. 갈지자 씨레질 방식은 물이 깊은 곳 또는 소 돌리기 좋은 곳 등에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대체로 논의 모양에 따라 시작점은 달라졌다. a 논두렁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하여 b 두렁을 향하여 비스듬하게 진행하다가, b 두렁에 도달하면 d 두렁을 향하여 가고, d 두렁에 이르면

다시 c 두령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면 거칠지만 갈지(之)자 모양이 형성되었다. c 두령에 도달하면 씨레를 완전히 돌려서 처음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이때 처음 씨레가 지나왔던 마루에서 한 마루를 띄어서 평행하게 나아가며 처음 시작했던 a 두령으로 되돌아온다. 그 다음에 a 두령에서 씨레를 완전히 돌려 다시 한 마루를 띄어놓으며 c 두령으로 되돌아가는데, 이때 첫 씨레가 지나갔던 마루와 두 번째로 되돌아온 마루 사이에 띄어둔 생땅의 가운데 마루를 떠서 마지막 지점으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갈지자 모양을 그리며 반복한다. 갈지자 씨레질 방식에서 마루를 두고 씨레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씨레의 특징에서 비롯되었다. 짧게는 약 120cm 길이의 호리씨레에서 길게는 약 150cm 길이의 겨리씨레에 이르는 씨레바탕의 씨레를 들고 방향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씨레질에서 방향전환은 좌우로 180도 회전하는 것보다는 90도 또는 원만한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것이 수월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귀어치기나 돌아치기와 달리 갈지자 모양으로 논을 삶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농민들은 뚜렷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산골짜기의 작은 논배미와 갈 거름 등에서 까닭을 찾았다. 사실 네 개의 두령을 전부 이용하는 것은 이상적인 갈지자 씨레질 방식이었고, 농민들은 실제 두 두령 또는 세 두령을 이용해 나아가며 논을 삶았는데, 공통점은 씨레질의 마루는 직선보다는 사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골짜기의 논배미가 적은 논에서 가능하면 부림

소의 회전반경을 줄이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그재그 방식으로 오가는 용써레질 방식도 갈지자 써레질 방식의 초보 단계이자 경작지 사정에 따른 응용방식이라고 하겠다. 물론 두 방식 사이의 기술 숙련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갈지자 써레질 방식은 갈 거름과 관련이 있었다. 비료가 공급되기 전에 논 거름으로 갈잎을 넣었는데, 써레질을 하면서 잘 썬을 수 있도록 갈잎을 논바닥에 골고루 퍼서 땅속에 묻어놓는 것은 성군의 또 다른 능력이었다. 농민들은 갈을 골고루 퍼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오가는 것보다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오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예컨대 강원도의 경작지 환경, 견인방식, 시비법 등의 영향으로 갈지자 써레질 방식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용써레질 방식과 갈지자 써레질 방식은 강원도 산간지역 겨리농경이 만들어낸 방식이라고 하겠다. 특히 갈지자 써레질 방식은 가장 중요한 논갈이 기술로 밭갈애비의 급을 나누는 기준 가운데 하나였다. 예컨대 아이갈이, 거슬리기 등의 논갈이와 밭갈이를 잘하는 사람도 갈지자 써레질 방식에 대해서는 “못한다” 또는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써레질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밭갈애비 또는 성군이라는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지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대체로 논농사가 많은 마을에서는 써레질하는 사람을 논밭을 가는 사람과 구분하고자 성군 또는 심일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구분의 경계에는 갈지자 써레질 방식이라는 기술이 자리 잡고 있었다.

3 발갈애비와 성군이 나가신다!

우경이 중심이던 시절에 뛰어난 발갈애비는 그 어떤 일꾼보다 중요한 일꾼이었다. 이들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선군 또는 성군이였다. 씨레질을 잘하는 사람을 ‘으뜸 일꾼’, 즉 성군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선군의 하루 일당은 어떻게 됐어요?) 일당은 똑같아요. 일당은 똑같은데, 대우는 아주 그 사람 선군이라고. 그게 모심는다 하면, 선군은 먼저 얻고, 저 뭐야 선군을 얻고야 모 낱을 받았어요. 논 삶는 사람이 없으면 모를 못 심잖아요. 그래 아주 선군은 모심을 제는 아주 한 텀 올라 쉬지, 담배도 고급담배 주고, 술도, 술도 아주 참참이 그 사람 가져다 먹이고, 아주 대우를 잘해주죠(허남윤, 1936년생, 흥천군 서석면 어론2리, 2012.1.11.).

(성군은 대우가 다르다면서요?) 그럼요. 또 자유시간이 많잖아. 남모 줄 때 한뼉가에서 앉아 술이나 마시고, 쉬고 또 늦게 가도 되고. 그래 모 한 반 줄 동안까지 놀지. 놀다가 인제 미리 삶으면 안 되니까. 인제 그다음에 소 차려 메어가지고 인제 논 삶아주고, 또 일찍 끝나도 모심으러 안 들어가잖아. (마을에 성군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성군이 한 7~8되지. 많이 들어가는 덴 소가 4거리까지 들어가니까. (...)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시고 이젠 여긴 나밖에 없어(방형배, 1947년생, 흥천군 내면 광원리, 2012.3.21.).

씨레질은 화전갈이와 달리 다른 사람이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 화전갈이는 사실 소가 아니더라도 팽이로 골을 캐도 되고, 아니면 소모는 것이 조금 서툴러 골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천천히 해가면 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화전갈이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씨를 뿌리는데 눈에 떨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그러나 씨레질의 경우 성군이 씨레질을 하다가 더 일하기 싫다고 탑손을 놓아버리거나, 늦장을 부리고 잘못하면 당장 모를 심을 수가 없기도 하였다. 또한, 논흙을 잘게 썰고 편하게 삶지 못하면 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논 주인은 가능하면 능력이 좋은 성군을 모시려고 노력하여, 이름난 성군은 모내기철이 되면 이곳저곳으로 불려다니기 바빴다. 즉 한 해 농사는 씨레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자기가 원하는 날에 모내기를 하고자 한다면 모내기꾼을 모으는 것도 중요했지만, 우선 논을 삶을 수 있는 성군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마을마다 성군이 따로 있어서 모내기철이 되면 이들의 일정에 따라 모내기 시기가 정해지기도 하였다.

성군은 모든 면에서 특별대우를 받았다. 마을에서 이름난 성군은 논을 삶느라 모를 뜨거나 심지 않았다. 15살 때부터 소만 따라다녔다는 송제호(1930년생, 화천군 간동면 간척3리, 2015.11.24.)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만 부려서 자신은 정작 모를 심을 줄 모른다고 했다. 사실 성군이 모를 심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곳저곳 불려다니며 마을의 많은 논을 삶은 농민이 정작 자신은 모를 어떻게 심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를 심을 줄 모른다는 말을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성군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소가 끄는 씨레로 농사를 짓던 시절, 성군이 있었다는 점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5

밭갈애비와 성균의 조건

1 열두 군대를 보아야 해요!

연장의 탐손을 잡았다고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뛰어난 밭갈애비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부림소에도 등급이 있듯이 밭갈애비에도 등급이 있었다. 마을에서 노인분들을 만나 예전에 누가 연장을 잘 다루었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누구 아버지’, ‘○○○’ 등을 들먹였다. 뛰어난 밭갈애비는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었을까?

(밭을 갈아 놓은 것을 보면 누가 갈았는지를 다 아세요?) 다 알아요. 밭을 그 고랑을 맨드는 그 기술이 틀리니까. 밭고랑을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그래야 보애비라 그러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이 건 보애비가 아니야. (잘하는 보애비의 고랑은?) 반듯하고, 깊이 같고, 그 뭐야 밭고랑을 보면은 선수가 갈았는지 서투른 사람이 갈았는지 보면 알아요. 선수가 그래서 있는 거지. 그래야 김[풀]이 덜 들고, 고랑이 또릿또릿하게 만들어 놔야. 좀 깊이 가는 게 김이 덜 들고, 껍데기 밭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슬슬슬슬 푸근히

가는 사람 있고, 푸군히 (푸군히?) 깊이 가는 거 푸군히. 그래서 선수하고 선수 아닌 사람하고 하는 거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건 발에 풀이 많잖아, 많은데. 선수가 같은 거허구 서투른 사람이 같은 거허구 벌써 같이놓은 거 보면 벌써 풀이 쌓이질 않아. 서투르니까는 흙이 넘어가서 덮질 못한다구, 풀을. 그러니까 걸으로 흘리고나 있는 거지, 그냥 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선수가 있대는 거지. 발가는 건 선수가 같아야 김을 많이 잡는대(박광순, 1934년생,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 2011.6.22.).

(어떤 사람을 잘하는 쟁기질꾼이라 합니까?) 그거 쟁기질, 소 잘 물고, 밭 잘 갈고, 논 잘하고 그러는 게 잘하는 쟁기질꾼이지 뭐. (...) 잘한다는 건 벌써 쟁기질꾼은 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면 벌써 뒤부터 돌려다 봐요, 이 고랑이 삐뚤어졌는지, 똑바른지. 그래 나을 적에 인제, 혹 중간에 어디가 조금 이렇게 흰 데가 있어. 그럼 나을 제 거길 똑바로 짜죠. 그렇기 때문에 쟁기질 잘하는 사람은 벌써 나가서 보면 아주 일(-)자로다 먹통으로 줄 띄운 것 마냥 똑바로 나가죠. (...) 그리고 발가는 것도, 이 고랑이 이렇게 있으면은 왔다 갔다 맨들잖아요? 이 복판에다가 햇고랑, 묘리를 박으면 안 돼. 고랑이 밧고랑이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비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쯤 고랑을 맨들어 놔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이게 나중에 똑바로 나오잖아. 이걸 복판에다 쪼그만 밧고랑 하나를 맨들어 있는 거를 '묘리[묘리]'라 그래거든요? (묘리, 가운데 고랑 하나 만들어놓는 거를?) 묘리라 그러는데, 이것을 복판에다 해놓으면은 벌써 쟁기질하는 사람이 '이 쟁기질 이거 누가 했는지, 쟁기질꾼이 아니로군' 이래요 (최석현, 1934년생, 흥천군 동면 신봉리, 2012.3.14.).

(누가 제일 이름난 성군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저 밑에 그때 연세가 많으셨던 손학성이라는 분이, 그분이 그 잘했다고 소문났었어요. (...) 그분은 모심기 시작하면 모 하나 안 꽃고 쟁기질만 했으니까. 그래. (여기저기 불러다니느라고요?) 예, 그렇게 했어요. (...) (잘하는 성군은 뭘 잘해야?) 일단 소 잘 물고, 모심기 좋게 해놔야 잘하는 거죠. (모심기 좋게 한다는 게?) 평평하게, 물렁하게 잘해 놔야 좋게 하는 거죠(남원우, 1935년생, 흥천군 화촌면 장평1리, 2012.7.4.).

할 일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되는 김매기 등의 성과를 결정할 만큼 중요했다. 아이같이 경우에는 생땅이 남겨지지 않도록 갈아야 하고, 벼 그루, 잡초 등이 완전히 덮일 수 있도록 흙덩이도 잘 뒤집어야 했다. 뒤집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여름철에 잡초가 나는 것이 달라졌다. 그리고 씨레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밭갈이와는 달리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였다. 게다가 모내기꾼들이 씨레질을 하는 성군을 따라오며 모를 심기 때문에 성군은 모내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논을 빨리 삶아야 했다. 성군이 되려면 적어도 마루를 잘 찾는 것은 기본이고 모를 심기 좋도록 흙덩이를 잘 부수고, 흙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물웅덩이가 없이 평평하게 고를 줄 알아야 했다. 특히 거름으로 갈을 넣던 시절에는 갈을 얼마큼 잘 골고루 퍼서 묻느냐가 성군의 솜씨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이렇듯 뛰어난 밭갈애비 또는 성군의 실력은 고랑 모양, 흙 뒤집기, 논 상태 등에서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밭갈애비가 행한 작업의 결과였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밭갈애비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무릇 논밭갈이를 할 때 밭갈애비는 탐손을 잡고 나아가며 오감(五感)을 동원하여 주변의 모든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밭갈애비가 12군데 눈을 살핀다 그러잖아. 저기 보면, 저 숨은 돌이 있구나. 저 낭구[나무]뿌리가 있구나,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 쟁기가 망가지거든. 무쇠는 돌에 채이면 델컹델컹 부러지니까. (...) 12개 본다는 게 무슨 말이고 하면, 밭갈애비가 발만 봐야 되는데, 소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것도 봐야지, 앞에 뭐 걸리나 안

걸리나 이것도 봐야지, 고랑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것도 봐야지, 돌머리 ‘화이’ 있나, 화이라는 건 이 통 빠져들어 가는 데가, 돌구녕 뚫른 데가 있거던. 그런 데 잘못 빠지면 소 다리가 불거지고, 사람 다리 다치고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런 것도 살펴봐야지. 참, 심지어, 뒤로, 아주 먼네 발에 이고 오는 밥그릇도 봐야지. 별 걸 다 본다는 게, 그게 12군데 눈을 살핀다는 게야. (...) 그러니까 아 여복하면 참 장난에 웃음 소리로, 일꾼들 콩 심다가 아주먼네 소변 놓는 거 그럼, 발갈애비가 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야. 여기 오면 그런 소리, 그러니깐 신경은 그만침 써야 일류 발갈애비라는 거지(심흥규, 1936년생,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2013.1.11.).

소를 저거를 할 적에 그전에 발을 갈려고 그러면 열두 군데를 봐야 된데는 거야. 열두 군데를. 그러면 소가, 벌써 봐봐! 발갈애비가 내다 볼 수 있는 그게 소가 발이 여덟 개잖아? 벌써 여덟 개. 그거를 일일이 다 봐줘야 된 데는 거 거든요 그게. 그렇지 발 여덟 개에 또 소고삐를, 뭐 목이라든지 소를 앞을 볼려면 벌써 소 두 마리니까는 열두 군데. 연장 봐야지 앞에 중심 소를 발갈애비가 볼라고 앞을 탐손을 잡으면 앞에 나갈라 그러면, 보애비는 열두 군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자격이 된다는 거거든(김호성, 1955년생, 춘천시 동면 품걸리, 2011.4.14.).

이재환(46세)은 아버지 환갑 때, 만형이 분가를 한 까닭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발을 갈았다. 소몰이에 애를 먹는 것을 본 아버지는 발을 갈려면 소 마음까지 읽어야 된다면 12가지를 일러주었다. 그 가운데 아홉 가지이다. ① 소의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가 보고 ② 소의 눈이 돌아가는 방향을 보고 ③ 멩에가 벗나(벗어지나), 제대로 있나 보고 ④ 소 앞발이 어디로 가나 보고 ⑤ 안소 발자국이 어디로 꺾어지나, 마라소 발자국이 어디로 꺾어지나 보고 ⑥ 보습이 어느 쪽으로 틀어지나 보고 ⑦ 내가 어느 쪽으로 꺾어야 보습이 제대로 가는가 생각하고 ⑧ 발에 돌멩이가 있나 없나 보고 ⑨ 돌멩이가 보습 끝에 채이면 빠져나올까, 아니면 보습이 깨질까를 판단한다(이재환, 46세,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김광언, 2010:243~245 재인용).

누군가 연장의 탐손을 잡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논밭갈이가 되는 것이 아니듯, 그 사람도 밭갈애비가 될 수가 없었다. 이른바 밭갈애비는 연장의 탐손을 잡고 있으면서 오감으로 수십여 가지를 살피고 소와 소통하며 연장을 다루어야 했다. 많은 농민이 뛰어난 밭갈애비는 겨리연장 탐손을 잡으면서 열두 군데를 살피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12가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농민은 없었고, 또한 농민마다 제시한 것도 서로가 사뭇 달랐다. 아마 여기에서 열두 군데는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그만큼 밭갈애비가 여러 곳을 골고루 살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상투적 표현인 듯하다. 하여튼 열두 군데는 부림소의 움직임, 연장, 경작지 상태, 밭갈애비 자신과 뒤따르는 농사꾼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 가운데 논밭갈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부림소의 움직임과 경작지 상태를 살피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경의 시작과 끝은 부림소에 있는 만큼, 부림소를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부림소 전체를 살핀다고 하겠지만, 대체로 부림소의 멍에, 목다줄, 초꽂이, 앞발 등을 살피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림소의 멍에 주변과 앞발이었다.

(잘하는 쟁기꾼은 뭘 제일 살피려야 하나까?) 소 가는 걸 잘 봐야죠. (소발을 보니까 아니면 멍에를 보니까?) 머리쪽을 봐야죠. 그래야 이 소가 뭐 어느 쪽으로 가는지 빨리 알잖아요(남원우, 1935년생, 흥천군 화촌면 장평1리, 2012.7.4.).

제리[겨리]는 안소와 마라소가 있으며 안소가 일 잘하는 능숙한 소이고 마라소는 어린 소로 일이 서툰 소이다. 안소가 왼쪽에 있는 소이

고 마라소는 오른쪽에 있는 소이다. 소를 능숙하게 부리는 사람은 소의 앞발을 보고 발을 갈며, 처음에 가는 서툰 사람은 가대기[연장]만 들여다보고 발을 간다. 소의 앞발이 잘못 가면 꼴이 틀러지기 때문에 앞발을 잘 봐야 한다. (...) 소를 부릴 때는 항상 눈이 소의 앞발에 가 있어야 한다(윤상규, 남, 62세,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1994.11.8., 김진순, 1995:28~29 재인용).

농민들은 초짜 발갈애비는 연장의 보습이나 연장 그 자체를 쳐다보지만, 능숙한 발갈애비는 소의 머리와 앞발, 무엇보다 소가 앞 발짝을 띄는 것을 잘 관찰한다고 하였다. 이는 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고랑을 타고 가는 소, 특히 안소의 앞발이 고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럴 때만 고랑을 곧게 켤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빼놓지 않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멍에, 특히 목다줄이었다. 부림소의 힘을 보습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림소에 멍에를 매고 목에 다줄, 이른바 목다줄을 감는다. 호리는 곱명어로 곱명어의 한 끝부분에 줄을 달아매고 이를 소 목에 감아 멍에의 다른 쪽 끝부분에 걸었다. 겨리는 일자형 멍어로 멍에의 양 끝부분에 구멍을 내어 별도의 막대기, 소위 목살을 박고, 목살의 끝부분에 다줄을 달아매고 이것으로 소 목을 두른 뒤에 멍에에 매달았다. 멍에는 목다줄을 매는 작은 꼬챙이를 만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멍에 몸체에 둘러매었다. 문제는 목다줄이 소 목을 감고 있어서 너무 느슨하게 목다줄을 매면 멍에가 목 뒤로 밀리면서 목등에 상처를 내거나 염증을 유발하고, 너무 바짝 조이면 소 목을 눌러서 숨쉬기가 곤란해졌다. 이를 방지하고자 소

목 아랫부분에 숨 실 공간이 있는 V자형 목젖개를 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목다줄은 부림소가 자신의 힘을 멍에에 제대로 전달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밭갈애비는 수시로 목다줄의 상태를 살펴야 했다. 또한, 겨리의 경우에는 안소와 마라소 사이의 간격 등을 살펴봐야 했다.

밭갈애비의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은 땅의 상태에 따른 연장을 다루는 기술에 있었다. 즉 밭갈애비는 경작지에 시선을 두고 그때그때의 상황을 놓치지 말아야 했다.

(연장을 다루는 사람 중에 어떻게 하는 사람을 잘 다룬다고 하나 까?) 그러니까 소가 힘이 안 들게. 힘이 안 들게 다뤄줘야 해. 소가 힘이 안 들게 이걸 살짝살짝 꺾 눌러고 있는 거거든, 살짝살짝 들어주면서 이 흙을 빨리 여기에 고인 걸, 이런 데다 슬쩍슬쩍 넘겨주고, 그 래야 쟁기질꾼도 힘이 안 들고, 소도 힘이 안 들고, 갈기도 많이 같고, 그렇지, 꺾 누르고서 그냥. (타손을 살짝 눌러서?) 눌러주면서 살짝살짝 들어주면서, 그래도 여느 사람 가는 거보단 다 짊어[깊이]든 다 들어가고 빨리 갈고 많이 갈고, 소가 힘이 안 드니까, 소도 잡아당기기 좋고. (타손을 얼마큼 잘 다루느냐?) 아, 그렇지. 이걸 잘 운전하나 이게 요령이죠. 이걸 힘이 안 들게 해주니까 소도 잘 빠져나가고 갈기도 많이 갈고(강영석, 1935년생, 흥천군 두촌면 자은2리, 2012.1.31.).

또 이 밭에 이렇게 배긴 돌 있잖아, 배긴 돌? 이거를 쟁기 망가뜨리는 사람이 왜 망가뜨리냐면은, 쪽 가다가 소가 주춤할 때는 뭐가 걸렸다는 걸 알아야 돼. (소가 주춤하면?) 주춤하면, 아 평상시 가다가 딱 걸려서 못 나가니까 주춤하는 거란 말야. 빨리 알아서 그걸 떼 줘야, 비켜줘야 되는데. 소가 주춤하면 이게 왜 안 가냐고 때린단 말이야. 때리면 쟁기 다 망겨, 하면 알아. 차 어디가 조금 부딪혀도 알듯이, 안다고 감각이.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 아 곁에 돌이 안 보이는데, 이게 왜 안 가냐고 소를 문단 말이야. 물으면 망가지는 거야. 그래 보습 뽐겨먹고, 보습이 무쇠기 때문에 그

게 이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뿔거진단 말아(방형배, 1947년생, 흥천군 내면 광원리, 2012.3.21.).

쟁기질의 궁극적인 목적은 논밭을 가는 데 있어 땅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땅의 상태에 따라 쟁기질의 방식도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강원도 산간처럼 나무뿌리나 돌 등이 많은 거친 땅에서는 땅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부림소 움직임을 보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예컨대 돌이나 나무뿌리가 있나 없나, 돌의 크기는 얼마인지, 돌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지 등을 살피고, 그냥 피해갈 것인지 아니면 보습을 넣어서 파헤칠 것인지 등을 순간순간 결정해야 했다. 사실 장애물을 눈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막 일군 화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돌과 나무뿌리 등이 수두룩하였다. 아무리 뛰어난 밭갈애비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는 시각(視覺)뿐만 아니라 촉각(觸覺) 나아가 오감(五感)을 작동해서 온몸으로 읽어야 했다. 무릇 밭갈애비라고 하면 부림소의 작은 주춤거림이나 보습의 걸림 등을 순간 포착하고 연장을 다룰 줄 알아야 했다. 큰 돌이 걸린 순간 연장을 들어주어야 하고 작은 돌은 보습 끝을 집어넣어 파헤쳐야 했다. 가는 나무뿌리는 보습을 비스듬히 대서 끊기도 하였다. 이를 제때 하지 못하면 보습이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연장이 망가지기도 했다. 따라서 밭갈애비는 오감을 작동하며 부림소와 연장과 하나가 되어야 했다. 이 상황을 표현한 것이 밭갈애비는 “눌러주면서 살짜살짜 들어주면서” 가야한다는 말

이라고 하겠다. ‘누르면서 들어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아마 “누르면서 들어준다”는 말처럼 강원도 나아가 한국의 발갈애비가 연장을 다루는 솜씨를 잘 드러내는 표현도 없을 듯 싶다.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은 조선의 발갈애비의 쟁기질 솜씨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바로 누르면서 들어주듯 연장을 다루는 그 순간이 감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겠다. 강원도 연장을 비롯한 한국의 대부분 쟁기는 술받침이 없는 선쟁기로 흙을 뒤집어엮거나 골을 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장을 눌러주어야 하나 부림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때에 들어주어야 했다. 열두 군데를 볼 수 있는 뛰어난 발갈애비는 연장과 부림소와 하나 되어 온몸으로 보고 느끼고 움직였다.

2 소와의 소통: 소와 소를 잇고 소통한다.

“쟁기질은 아무 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련한 농부의 오랜 훈련과정에서 숙련된 소라야 가능하다”는 말처럼 쟁기질의 능률은 부림소와 발갈애비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었다. 특히 두 마리의 소가 이끄는 겨리 쟁기질에서는 발갈애비와 부림소와의 소통이 쟁기질의 모든 것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심일꾼이 되려면 뭘 잘 다루야 되나요?) 아이 글씨 난 그건 잘 모르겠고, 뭘 잘 다루는 거보다 소가 첫째 말 잘 들어야지. 뭐 암만 사람이 잘한대도, 우겨부려도 안 되는 거고, 소가 말 잘 들어 줘야 첫째지 뭐.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소가 말을 잘 들어야지(김주찬, 1932년생, 흥천군 서면 개야리, 2012.4.25.).

논갈이, 특히 ‘아이갈이(첫 갈이)’에서 비롯했다. 밭의 경우 흙
 밥이 좌우로 넘어가고 좌우로 방향을 돌며 갈이를 하기 때문에
 안소와 마라소 가운데 어느 소가 굳이 더 많은 힘이 들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논갈이, 특히 아이갈이의 경우, 추수 후부터
 굳어있던 땅을 ‘생칼’, 즉 생땅이 없도록 남김없이 갈아야 했다.
 논갈이를 할 때는 밭갈이와 달리 보습 위에 벼를 달거나 보습
 을 왼쪽으로 엇비슷하게 기울여 흙밥을 왼쪽으로 넘겼다. 따라
 서 왼쪽에서 먼저 갈아엎어 울퉁불퉁한 땅을 밟으며 연장을 끌
 어야 하는 안소는 생땅을 밟고 가는 마라소보다 상대적으로 많
 은 힘이 들었다. 안소와 마라소의 역할, 이른바 ‘안팍을 다할 수
 있는’ 소가 있었지만, 한번 안소 또는 마라소인 경우 죽을 때까
 지 서로의 위치를 바꾸지 않았다. 이른바 ‘개마라’는 안소 자리
 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평생 마라소 역할만 했다고 했다. 이
 런 역할 고정은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어떤 위치에서 일을 배
 우며 길들여졌는가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부림소는 훈련시키기 나름이라고 했지만, 어떤 소나 부림소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좋은 부림소는 “척 보면 안다”고 할 정도
 로 부림소는 타고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선택의 기준은 사람
 에 따라 다르고 때로는 상반되기도 했다. 그 기준은 오랫동안 소
 를 키우면서 얻어지는 것으로 사람마다 딱히 말로 정확하게 표
 현할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다고 했다. 부림
 소는 일단 목이 가늘어야 한다. 목이 굵은 소는 행동이 둔하다고
 했다. 그리고 등뼈가 곧아야 한다. 등뼈와 꼬리가 붙은 선이 튀

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리가 튼실하며, 특히 발굽이 둥글어야 논밭에서 며칠을 일해도 쉽게 발굽이 잘 갈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타고난 이 모든 것도 훈련이 없다면 소용이 없었다.

보통 거리소로는 암소를 선호했다. 암소는 수소에 비하여 쟁기를 끄는 힘은 떨어졌지만 발갈애비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었다. 암소를 선호하는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는 일년마다 낳는 송아지였다. 1년 농사뿐만 아니라 자식 농사도 모두 소에 달렸다고 할 정도로 농촌에서 소는 집안의 가장 큰 살림밑천이었고, 또한 유일한 현금원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일을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송아지도 잘 낳아야 ‘좋은 부림소’인 셈이었다.

소에 쟁기를 걸려면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이 필요했다. 우선 조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 코뚜레를 끼워야 했다. 소는 5-6개월쯤 자라면 거의 성장하게 되어 사람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져서 소를 다루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이런 소에게 쟁기를 매워 함께 농경작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은 않았다. 따라서 소를 통제하려는 갖가지 수단을 구했는데,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수단이 코뚜레를 거는 것이었다. 아무리 힘센 소일지라도 일단 코뚜레를 잡힌 순간 사람에게 코가 꺾인 소일뿐이었다. 코뚜레는 송아지가 태어난 지 6개월에서 8개월이 되었을 때 양코 사이의 연한 막에 나무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코뚜레를 끼웠다. 코뚜레를 잘못 뚫으면 고삐를 조그만 잡아당겨도 코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코뚜레로는 대체로 잔가지가 일지 않는 노가지나무를 사용했다.

본격적으로 부림소를 만드는 작업은 멍에를 질 수 있도록 목에 힘을 키우는 일부부터 시작되었다. 소는 보통 생후 2년이 되면 일을 배울 수 있었다. 송아지의 목 부분의 등뼈가 연골일 때, 다시 말해 등뼈가 더 자라 딱딱해지기 전에 멍에로 등뼈를 눌러주어야 했다. 등뼈가 다 자란 후에는 부림소를 만들고 싶어도, 멍에에 눌린 등뼈가 아파 소가 날뛰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가 없었다.

새로운 소 두 마리를 한꺼번에 부림소 훈련을 시키면 굉장한 애를 먹었다. 따라서 쟁기를 끄는 데 익숙한 소에 새로운 소를 짝지어 가르쳤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앞에서 소의 고삐를 잡고 끌어주었고, 뒤에서 발갈애비가 쟁기의 탐손(손잡이)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머리가 좋은 소’는 몇 나절만 배우면 쟁기를 곧잘 끌었는데, 그렇지 못한 소는 일 년 내내 고생했다. 특히 내면과 내촌면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나무발구(썰매)를 끌게 하면, 목에 힘이 생겨 봄철에 쟁기를 끄는 일에 빨리 적응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소는 고삐에 따른 조정과 ‘이려’, ‘위-후’ 등의 지시명령어에 익숙해졌다. 물론 부림소는 한두 번의 훈련으로 능숙한 부림소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논밭에서 일한 지 3~7년 정도가 되어야 숙달된 부림소가 되었다고 했다. 일 잘하는 소들은 스스로 알아서 일하였고, 서투른 발갈애비를 가지고 놀았다고 했다. 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가 늘 발 같고 논 잘 가는 사람은 첫 탐손을 쥐면 알아. 초대는 아주 비호같이 알지. 처음으로 탐손 친 사람은, 그거 슬금히 돌려 잡는 게, 소가 사람을 얼마나 없이 보는 데. (제가 아버님 대신해 탐손을 잡았다 그러면, 소가 “이랴” 해도?) 흠흠흠 돌리다보며 잘 안 가. 탐

른 소는 더 많은 힘을 받게 되어 나아가지 않고 물러서려고만 했다. 이러면 논밭의 골을 곧바르게 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의 속도도 늦어지고, 결국에는 서로 지쳐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하루해가 다 지나갔다. 한마디로 겨리연장의 논밭갈이와 씨레질은 발갈애비와 부림소 사이에서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었다. 연장으로 논밭을 가는 일은 기본적으로 소와 함께 하는 작업으로 발갈애비와 부림소가 서로 호흡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발갈애비와 부림소가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것을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의 호흡이란 부림소가 발갈애비의 의사를 얼마큼 잘 알아차리고 그 의도에 맞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었다. 이른바 부림소가 힘으로 우겨 부릴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면, 발갈애비가 ‘말 못 하고 말귀를 알지 듣지 못하는’ 부림소에게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고 전달하느냐가 소통의 관건일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주로 채찍, 고삐 그리고 말로 서로 소통했다(김세건, 2012). 고삐, 채찍, 소리(이른바 소모는소리)는 소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각기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했다.

(소가 말귀를 알아들습니까?) 거의 알아듣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깐 잘 못 간다고 호통을 치면 씩씩대고, 그저 올라서고 이러니깐 잘 듣는다고 봐야 되요. (회초리도 사용하고요?) 예. 회초리로 빨리 가라고 때리기도 하고, 또 올라서지 않으면 올라서라고 뒷궁덩이를 치기도 하고. (또 고삐는?) 고삐는 그러니깐, 위로, 위에소가 내려오면은 위에소 고삐를 툭툭 치면, 가질 못하고 서잖아요. 서면 밑에 소가 자연히 올라서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고삐를 잡아당기면 위에소가 서니까?) 예. 위에소 고삐를 툭툭 치면 위에소가 서니까, 밑

제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무엇보다 고삐는 좌·우로의 방향전환뿐만 아니라 사람이 의도한 대로 소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정도구였다. 거리연장인 경우, 발갈애비는 고삐를 엇갈려 잡았다. 즉 안소의 고삐는 오른손으로 잡고, 마라소의 고삐는 왼손으로 잡아 고삐가 소의 몸통 위를 지나게 된다. 고삐가 소의 옆구리와 접촉하는 것보다 몸통 위를 지나는 것이 고삐와 소의 접촉을 감소시켜 소의 고통을 적게 하고 소가 걷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정연학, 2004:281). 좌·우로 방향전환을 할 때 원하는 방향에 있는 한쪽 소의 고삐만을 잡아 당기면, 고삐가 당겨진 소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되고 고삐를 잡아당기지 않은 소는 앞으로 나아가 방향전환을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예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안소의 고삐만을 잡아당긴다. 그러면 안소는 제자리에 서게 되고, 마라소가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돌게 된다. 이처럼 고삐는 일소에게 크게 무리를 주지 않고 발갈애비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고삐를 통해 소를 얼마나 잘 다루냐가 발갈애비의 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다음은 채찍이다. 채찍은 발갈애비의 의사를 일소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조정도구였다. 즉 채찍질은 채찍을 가지고 부림소를 때리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쟁기질꾼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김준근의 〈기산풍속도〉 등과 같은 한국의 19세기 풍속화에서 발갈애비의 손에 들린 채찍을 쉽게 볼 수 있

듯이, 채찍을 통한 의사소통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었던 것 같다. 채찍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m 정도 길이의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사용했는데, 잘 부러지지 않는 물푸레나무(수정나무), 뽕나무 등이 좋다고 했다. 발갈애비는 소가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물러서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채찍을 휘둘렀다. 채찍질이라고 하지만 힘껏 때리기보다는 보통 소 엉덩이를 한두 번 툭툭 치는 정도였다. 물론 고삐와 가볍게 툭툭 치는 채찍만으로 모든 의사 소통이 이루어질만큼 일소와 발갈애비의 관계가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한참 농사일을 할 때는 지쳐있는 부림소를 일으켜 세우고자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발갈애비와 부림소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이었다. 다시 말하면, 소에게 말로 직접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이 소리를 보통 ‘소(쇠)소리’ 또는 ‘소모는소리’라고 했다. 강원도에서는 소소리가 없으면 소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소소리는 소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이점은 한 농민의 다음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짐승도 다 알아듣거든 칭찬인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사람이 논 같고, 밭 같고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 서로 이렇게 통하지만 못하지, 희한하지. 여기 6.25사변 났을 적에 여기서 소를 끌고 경상도까지 내려갔다가 돈 없고 그러니까 소를 팔아먹을라고 하거든. 여기 사람은 소모는소리를 ‘선유에’라고 하거든. 노래 삼아, 잘하는 사람은 아주 듣기 좋지. 여기서 나가서 소를 파니까 소가 일을 잘한다 말이야. 그 래 경상도 사람이 소를 사 가지고, 그런데 경상도는 여기랑 소모는 식이 다르니까, 소가 일을 못한단 거죠, 그러니까 소, 일도 못하는 것 팔

아먹었다고, 그래서 소 판 사람들이 가지고 사뭇 여기서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아주 소가 일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소가 소리 잘해야 된다
 고, 강원도 소는 소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다고(이갑영, 79세, 양양
 군 서면 서림리, 2002.6.8. 『강원의 민요』 중.).

소소리는 강원도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강원
 도의 소들은 소소리 속에서 자라고 일을 배우며 최고의 부림소
 로 태어났다. 소모는소리는 채찍, 고삐와 마찬가지로 소를 다
 루는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나아가 의사소통 수단 가운데 가
 장 확장성이 넓어서 가장 구체적으로 발갈애비의 의사를 전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훈련이 잘되고 숙련된 부림소인가 아닌가
 는 발갈애비의 말을 알아듣느냐에 따라 평가되기도 했다. 앞
 서 언급했듯이 1905년 조선 농촌을 조사했던 고바야시 후사지
 로(小林房次郎)·나카무라 히코(中村彦)는 “한인(韓人)들의 쟁
 기 부리는 재간은 참으로 놀랄만하며 어떤 쟁기든지 혼자 다루
 며, 소의 코뚜레도 필요치 않다”고 했다. 여기에서 ‘소의 코뚜레
 가 필요치 않다’는 말은 소의 코뚜레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코
 뚜레에 연결된 고삐에 의존하지 않고 소소리로 부림소를 다루
 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일본 농학자들은 조선의 농민들이 고
 삐나 채찍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소소리만으로도 부림소를 능
 히 다루면서 쟁기질을 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듯하
 다. 이렇듯 노련한 소는 발갈애비가 지시하는 말, 이른바 소소
 리만 알아듣고도 척척 움직이며 일을 했다.

그런데 말은 채찍, 고삐와 독립적인 의사소통 수단은 아니었

다. 발갈애비는 말로 소에게 어떤 행동을 명령할 때, 대부분은 채찍, 특히 고삐를 함께 조작했다. 예컨대 부림소를 고랑으로 내려서게 할 때는 고삐를 당기며 ‘내려서’라고 말하고, 소에 방향을 틀게 할 때도 위-후라고 말하며 원하는 방향의 소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이렇게 본다면, 발갈애비의 의사를 소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고삐라고 할 수 있으며, 말은 고삐의 보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말은 결코 보조수단에만 머무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삐가 담아내지 못하는 발갈애비의 의사를 충분히 말로 풀어냈다. 나아가 익숙한 일소는 굳이 고삐를 잡아당기지 않아도 말만 듣고 행동을 했다고 했다. 한마디로 말은 소와 발갈애비 사이의 최고 의사소통 수단이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발갈애비가 의사 표현을 단순히 회화체로 하지 않고 말을 길게 또는 짧게 발음하고 음률까지 없어서 하기 때문에 소리는 하나의 노랫가락, 이른바 ‘소모는소리’가 되었다. 한국 남부지방의 논농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모는소리가 없는 곳에서는 소를 몰 때 단순한 몇 가지의 지시내용만을 회화체로 말했다. 따라서 이를 노래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소를 몰면서 구성된 가락에다 지시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설을 삽입하여 부르기 때문에 노래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말에 음률이 더해져 이른바 민요조의 ‘소리’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발갈애비라고 해서 모두가 소리꾼은 아니었다. 지역에서 이름난 발갈애비라도 소리다운 소리를 하지 못하

고 회화체로만 부림소에게 지시만 하기도 했다.

발가는 소리요? 그거 뭐 이려~ 이려면 가는 거죠. (한 번 길게 해 보십시오?) 길게요? “마라소야 안소야 돌아라” 뭐 그런 거 다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 뭐. (...) (최전순: 이 아저씨 소리 진짜 못 해요. 발 갈 적에 그냥 소리만 하지, 자기 혼자 그냥 소만 듣게 하지, 다른 사람 듣게 안 해요.) 뭐 올라서라 내려서라 그거 밖에 뭐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소가 이제 말 안들을 제만 이려는데. (...) (최전순: 우리 작은 시아버지가 그렇게 청승스럽게 소리를 아주 그냥 처량하게 한 거 보면 글썽 머리가 딱딱 아프더라니깐요. 나 처음에 시집와가지고 이 발을 소로 두 마리로 가는 것도 요[여기]와 처음 보고, 옥수수로 밥해 먹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리 작은 시아버지가 그렇게 봄이 됐는데 발을 가는 데 그렇게 처량스럽게 발을 갈으니, 아유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너무 청승스럽게 발을 소리를 하면서.) (김완달[1938년생]·최전순[1946년생] 부부, 흥천군 내면 광원리, 2012.1.12.).

김완달은 경작할 논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 씨레질을 하지 못했지만, 18살 때부터 겨리연장의 탐손을 잡고 화전과 ‘평밭(평지밭)’을 일구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겨리연장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필자에게 추천해주었다. 그러나 김완달은 자신의 부인이 인정하듯이 소리다운 소리를 하지 못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소모는소리의 기본은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에게 지시 명령을 내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강원도의 소모는소리는 소를 다루는 지시명령어의 독특한 발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모는소리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강원도 영서 지역의 생산민요를 풍요롭게 하였다.

6

소모는소리 속에 담긴 땅과 밭갈애비의 삶

1 왜 강원도에는 ‘소모는소리(쇠소리/소소리)’가 있을까?

축력을 이용한 쟁기질은 모든 지역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소를 몰면서 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말에 음률이 더해지면서 밭갈애비의 말은 노랫가락 ‘소리’가 되었다. 김진순(1995:20)이 지적하듯이, “소모는소리는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가창되는 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민요이다. 즉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강원도의 접경지역인 경기도 양평이나 가평, 포천, 여주 등과 충북 제천 등의 일부 지역에서 겨리소를 모는 소리가 있고, 제주도에 밭가는소리와 논삶는소리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상도, 황해도 지역에서도 소모는소리가 있다. 그러나 밭이나 논을 갈면서 하는 소리가 가장 많이 불

리는 지역은 강원도라고 할 수 있다.” 임석재(1986:11-12 참조)는 강원도의 소모는소리는 “일종의 민요구실”을 했다고 하였다. 이 소리는 그 자체로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강원도 대표 노동요로 자리매김하였다.

거기 연장을 다루는 사람은 그 신일꾼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소리도 잘해요. 그래야지, 그냥 대충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아주 구성차고, 진짜 예술이야 예술. (그런 분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잘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뭐 여기 그때 그렇게 소리 잘하고 하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허 선생님은 못 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는 구성차게 못하고, (거리소 몰 때하고, 호리소 몰 때하고 소리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거의 소리는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안소, 마라 이것만 따지는 것뿐이지, 거의 소리는 비슷해요. 아주 우렁차고 진짜 멋있어요. 가슴에 와 닿아요, 소리가. (아버님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소모는소리 아주 얼마나 잘하셨는지. 동네 아줌마들이 다 반할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잘했어요. 목청이 좋으셔가지고,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 가는 데 들어가면 심심해, 어떤 사람은 아주 구성차고, 진짜 아주 곧 매료돼서 폭 빠져요. 이 목청이 좋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허성옥, 1954년생, 황성군 서원면 압곡리, 2016.5.14.).

강원도 농촌, 특히 겨리농경 지역에서 봄 농사철이 돌아오면 농토 곳곳마다 겨리소로 논밭을 갈며 하는 밭갈애비들의 소리로 가득 찼다. 농민들은 부림소와 더불어 일을 할 때 소모는소리가 있어야만 부림소도 일을 잘했다고 말했다. 소모는소리를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에 따라 능력이 있는 밭갈애비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소리를 잘 알아듣고 그 소리 장단에 따라 움직이

는 소도 영리하고 능력이 있는 부림소가 되었다. 강원도에서는 소모는소리가 없는 같이작업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 소리에 따라 일터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소모는소리는 강원도 생산민요를 특징짓는 소리로 규정될 정도로 독특하고 그 자체로 예술성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남부 논농사 지대에서 흔히 보이는 집단노동요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강원도에서는, 논·밭을 겨리쟁기로 갈면서 부르는 소모는소리가 노동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소리로 자리매김하였다. 소모는소리는 선후창으로 부르는 집단노동요보다는 개별적인 노동에 따른 독창이나 교환창으로 부르는 개별적인 노래가 더 발달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개별적’ 노동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진순, 1995:20 참조). 소모는소리는 다른 노동요와는 달리 철저하게 밭갈애비와 일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의사소통의 산물이다. 즉 강원도의 소모는소리는 논·밭을 일구면서, 특히 두 마리 소가 협력하여 작업하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지시명령어에 가락을 얹고 다양한 사설까지 넣으면서 민요화된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소모는소리는 지시명령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지시명령어에 음률과 뉘두리가 더해지면서 강원도만의 ‘소모는소리’로 발전하였다. 그 소리에는 강원도의 농사환경뿐만 아니라 밭갈애비의 삶이 폭넓게 담겨있었다.

강원도에서는 이 소리를 보통 ‘소모는소리’ 또는 ‘소소리’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명칭이 달랐다. 김진순(1995:24-25참조)에 따

르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소모는소리의 명칭은 ‘산유화’, ‘산유해’, ‘선유해’, ‘선유에’, ‘산여’, ‘산야’, ‘산알’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유해’, ‘산유화’와 같은 명칭은 기능이나 분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라리’나 ‘미나리’처럼 소리 그 자체의 고유명칭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명칭들은 강원도 전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주로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등 북부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모는소리, 소소리, 섯소리, 겨리소리, 심일소리 등으로 불리었다. 강원도 지역마다 명칭은 다를지라도 소모는소리는 존재하며, 나아가 소모는소리 민요라고 할 만큼 독특한 민요적 성격을 띠고 있다.

왜 강원도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독특한 소소리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농민들 대부분은 또렷하게 일치된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왜 강원도에서는 소모는소리가 있습니까?) (길기수: 아 심심하니 간은,) (이우열: 한 마리, 한 마리 가지고 가면은 소리가 들 해요. 일자로만 나가니까. 근데 두 마리 가지고 하니까, 좌우 가리킬래니까.) (…)(두 마리로 하는 데서는 소리가 참 구성지단 말이예요. 아닌 말로 술 한 잔 드시면 신세타령도 나오고요?) (길기수: 애깃거리가 많지, 두 마리니까 아무렇게도.), (이우열: 강원도는 이 정말 산골에 살아서 그런지, 자기의 한이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깐 이제 그런, 이제 노래를 할 때도, 이 강원도 아리랑을 들어봐도 슬프잖아. 정선 아리랑 이런 걸 들어봐도 슬프잖아. 그진도 아리랑 같은 거 봐봐, 그건 아주 흥이 나가지고 하잖아.) (그래서 이 지역에 한이 많다는 거죠?) (이우열: 그렇죠. 내가 볼 땐 그래. 그러니깐 이제, 모든 게 슬퍼.) (길기수: 청승스럽지 뭐, 강원도 사람들이, 이러니)(이우열[1955년생]·길기수·박인영, 흥천군 동면 신봉리, 2012.3.6.).

(소모는소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길 하는데?) 예, 그건 곳
 곳이 다 달라요. 그게 충청도, 그때 나가보니까, 거기서는 호리로다
 전수 갈더라고요? 그래 소리는 ‘데데데’ 이런 거 하던데. ‘데데데
 데’ 이러면서 가도 소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기는 소리를 주쵸. (왜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는 한 마리니까 아마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
 데 소리를 들어보면 막 사설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옛날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럴것쵸(허남윤, 1936년생, 흥천군 서석
 면 어룬2리, 2012.1.11.).

이우열처럼 산골에 사는 강원도 사람들이 한이 많아서 소소
 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민들 대부분
 은 두 마리 소, 즉 겨리소를 동시에 다루기 위해서 소모는소리
 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발갈애비가 두 마리 소
 를 몰면서 꼭 노랫가락을 넣은 소소리를 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그냥 소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만 하기도 했다.
 이에 농민들은 이 지시명령어가 가락을 갖게 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의 노동고를 잊게 해주고 흥을 돋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소리를 하면 소도 사람도 피로를 잊고 즐겁게 일을 하여
 능률도 올랐다고 하겠다. 사실 소소리의 이런 효과는 굳이 소모
 는소리가 아니어도 보통 노동요가 가져오는 일차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모는소리는 기본적으로 소를 몰며 논밭
 을 갈 때 혼자 하는 소리로 발갈애비를 뒤따르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특별한 연관이 없어 대체로 뒷소리가 없었다. 즉 소모
 는소리는 발갈애비와 부림소의 상호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강원도 소모는소리의 존재 이유는 일차적으로 두 마리 소를 일
 치 협력하여 작업해야 하는 겨리연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실마

리를 찾아야 할 듯하다. 물론 겨리연장을 몰 때만 소모는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홍천군 남부의 북방면, 남면, 서면 등지에서는 겨리소로 논밭을 갈고, 호리소로 논을 삶는데, 일부 농민은 겨리소와 호리소와 상관없이 소모는소리를 했다. 그리고 김진순이 밝힌 바와 같이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호리소를 몰면서 소모는소리를 했다. 따라서 겨리질을 하기 때문에 소모는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모는소리의 존재 여부는 발갈애비에 따라 달랐다. 부림소 두 마리를 함께 끄는 것 자체가 노렛가락을 가진 소모는소리를 하게 하는 충분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겨리연장은 두 마리 소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호리보다 지시명령어가 더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가) 자연적 연행조건에서 호리 발가는 소리

이러 이러 이러
 너무 내려오지 말고 이러 이러 오호
 천천히 어서 가자 이러 이러 이러 어서
 어차 와
 이러 이러 이러 내려서 오호 올라서게
 이러 이러 이러 내려서 이러 어러
 어 어 어이 어 이러 이러 어서 나가이 이러
 어 올라서 이러 이러 어 어서 나가자
 이러 이러 어러 이러 이 이러 이러 이러
 이러 어 어 이러 이러 오 호 어디 이러 이러
 어 올라서게 슬슬 나가자 어 어이 어 이러 어 잘 나가자
 오 호

김종환(66세, 양양군 현북면 법수처리, 1995.4.13.)

(나) 자연적 연행조건에서 거리 발가는 소리

이러 어디여 어 안소 비켜서라
 이러 이건 안야 안야 제 곶에 안야 넘나들지도 말고
 어 이러 어치 안야만 당겨라 저 마라 저 안소 어후 어화
 안야야 어디 밀고 돌아만 가자 저 마라 왜 저렇게 설레나
 이러 어디 넘나들지도 말고 이러 어디
 안야 안야 왜 이리 덤비나 밀고 돌아서거라
 어디여 어 안소 안야 조금 더 당겨 당겨라 이건
 당겨라 어 제 한곶을 당겨라 마라마마 마
 어디여 어 안고 어디 어 허둥지둥 넘나드나 어 이러 덤성거린다
 어치 어허이 어후호오 밀고 돌아야 가자 어디여 어 안소 마라마
 안야 한발자국 더 나아가 마라마라 똑바로 가자
 어이 어 저놈의 마라
 어디여 이러 어디 덤성대지도 말고
 어이 이 어치 마라야 저 마라 안소
 마라가 어딜 넘어가나 안야야 똑바로 가자
 안야 마 어후 우 안야 어디
 저 마라 저건 어 왜 곶을 못 잡아 똑바로 가 엇서지 말고
 제 한 곶에 슬슬이 마라마어 저 마라 왜 저렇게 허둥지둥 막 가나
 ... 마라 어디여 어후 우 와하 아 와아 와!

이부길(68세, 양구군 방산면 금악리 간평, 1995.4.10.)

출처:김진순(1995:42, 51)

(가)과 (나)는 자연적 연행조건에서 평발을 갈면서 구연했다는 점과 쟁기질꾼과 소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채록된 소리이다. 다만 (가)는 호리, (나)는 겨리로 쟁기질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두 소모는소리는 밭갈애비도 소도 오랜만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밭갈애비가 자작 가사를 지어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설은 지시내용

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호리 소모는소리는 지시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며 음악적인 가락도 단순하다. 반면에 겨리 소모는소리는 호리의 경우처럼 단순한 지시내용만으로 사실이 구성되어도 호리의 경우보다 복잡하며 음악적인 가락도 더 풍부해진다(김진순, 1995:49-50 참조). 결국 겨리 소모는 소리가 호리 소모는소리에 비해 좀 더 복잡하고 사실도 풍부해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두 소의 협력에 의해서만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겨리연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겨리쟁기질에서는 두 소가 발의 보조를 맞추어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방향을 전환할 때 안소와 마라소가 각자 맡은 역할을 해야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 소에게 적절한 지시명령을 하며 연장을 다루어야 하는 발갈애비의 복잡하고 풍부한 지시명령어에 음률까지 더해진다면 그것은 하나의 노랫가락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겨리이기 때문에 소모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2 소모리소리의 구성과 특징

강원도 지역의 소모는소리는 소에게 지시를 내리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소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어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로 구성되었다. 김진순(1995:47)은 이를 보통 지시명령어와 일반사설로 나누고, 지시명령어는 다시 단어로 된 지시어[단순지시어]와 문장으로 된 지시어[복합지시어]로 하위 구분하였다.

먼저 단순지시어는 소에게 행위를 지시하는 말로 소소리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다. 흥천을 비롯한 강원도의 겨리농경 지역에서도 단순지시어는 대동소이했다. 대표적인 단순지시어는 “안야·아냐”(안소), “마라(마라소)”, “밑에소”, “윗소”, “이러·이랴(앞으로 가라)”, “와·와와(제자리에 서라)”, “우·어~후·워~ 후(방향을 바꾸어라)”, “어디·어디여·어더(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강함)”, “가자”, “내려서(고랑으로 내려서라)”, “올라서(이랑으로 올라서라)”, “우겨서(안으로 들어서라)”, “지어서(밖으로 나가라/물러서)”, “덤성대지마라”, “넘나들지마라”, “물러물러(뒤로 물러서라)” 등이다. 단순지시어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엇비슷하다. 또한, 단순지시어는 평발, 논, 화전 등의 경작지별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복합지시어는 “천천히 어서 가자”, “안야 제 굽에 안야 넘나들지도 말고”, “천천히 바우를 비켜라”라는 말처럼 단순지시어에 비해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복합지시어는 기본적으로 주로 화전 등의 특수한 경작지나 또는 겨리라는 기능상의 필요에 의하여 생긴 것(김진순, 1995:48)으로 경작지와 경작과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복합지시어도 단순지시어처럼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겨리가 행해지는 지역은 대체로 경작지 특성이 비슷해서 복합지시어에서도 상당 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소모는소리 가운데 지시명령어 외의 다른 부분은 ‘헛소리’ 또는 ‘넛두리’라고 일컬은 일반사설이다. 위에서 언급한 소리 가

운데 “이 소야 오늘은 화전 밭이다 힘 좀 내고 잘 갈아줘라, 내가 저 잘 몰게”, “해지기 전에 빨리 갈고 가자”, “한 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는 소에게 작업명령을 내리는 지시명령어라기보다는 소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뉘두리는 소모는소리를 노랫가락답게 하는 요소이지만, 소모는소리의 구성상 부차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신세타령은 저기 저 아주 밭이 물렁한 데서, 해는 다 저물어갈 때 인제 배는 고프고 그러면은 이놈의 소새끼는, 소새끼들도 배고프지. 그러면은 “이놈의 소새끼여어 으아아 부지러어언히이이이이 거어어어하자오아 야 이놈의 소야! 배고프다 빨리이이이 갈고 오오 집으로오오오오어 가자” 이래고서 이제 신세타령이 시작이지. 석양판에 해는 늦이 지고, 그거 참 징일 일할 적에, 피곤하고 그럴 적에, 술 한 잔 막걸리 그거 한 잔 텃답한 거 딱 한 사발 갖다 주면, 그거 먹으면 또 기운이 번쩍 나가지고 그때서 인제 소리 목청이 커지고 선, “이러어어어어어어” 소리가 점점 길면은, 이제 석양판야(지기복, 1935년생, 흥천군 화촌면 군업1리, 2012.1.31.).

말길을 타고 올라 말길을 타고 어디어 이러.
 이러 어디어 남의 집 고용살이 삼십년에 니 탓이나 내 탓이나
 난 천 못한 탓이오 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이
 내가 담배없는 탓이로구나.
 와 와 어디어 돌아서라 썩 돌아서...
 (이종구, 78세, 양양군 현남면 입암리, 1994.12.9. 김진순, 1995:63 재인용)

소모는소리는 지시명령어에 음률을 얹은 것이다. 즉 “소모는 소리는 가사보다 가락 중심으로 발달한 노동요이다. 가령 길쌈 노동요 같은 것은 단순하고 느리고 오래 계속되는 작업에 따르

는 노래이기 때문에 노동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상력이 동원되기도 하고 서사화되는 여유도 있지만, 소모는소리는 소와 함께 몸 전체를 움직이면서, 더군다나 이동하면서 하는 힘든 작업에 따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사 내용은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진술할 뿐이고 대신 가락이 발달한 것이다(전신재, 1989:599).” 즉 일이 시작될 때에는 일을 빨리 진행하고자 부림소를 채근하는 단순지시어와 복합지시어가 소모는소리의 주를 이뤘다. 일을 끝마쳐 가는 해질 무렵에, 게다가 일을 하면서 제누리[새참]로 마신 술의 기운이 올라오면 점차 발갈애비의 녀두리가 많아졌다. 이 녀두리의 내용은 발갈애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즉흥적이었다. 물론 소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시명령어만을 반복하는 반면에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반사설이 풍부했다. 주민들은 대체로 목청이 좋고 무엇보다 녀두리가 풍부한 사람을 소모는소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녀두리는 보통 화전을 갈 때 많이 했다고 하지만, 발갈이와 논갈이에서 큰 차이는 없는 편이었다.

녀두리의 내용은 소에게 일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일을 재촉하거나 소를 꾸짖는 이야기거나 때로는 소를 상대로 털어놓는 자신의 신세타령이다. 발갈애비에게 소는 ‘짐승’을 넘어 서로의 심중을 ‘가장 잘 아는 친구’이기도 했다. 이처럼 소모는소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느 노동요와는 달리 함께 일하는 부림소라는 친구에게 자신이 처한 현실과 신세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인생 노래였다는 점이다. 즉 소소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

는 낫두리는 밭갈애비의 삶을 반영하고 있고, 때로는 부림소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했다.

소모는소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듯하다. 먼저 소모는소리의 첫 번째 특징은 소리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소리의 대상은 부림소라는 점이다. 이점은 소모는소리가 다른 노동요와는 구별되는 가장 주요한 특징과 연결된다. 소모는소리의 독특성은 소와 소 그리고 사람을 잇고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거칠고 험한 땅을 일구어온 노동의 산물이라는 점에 있다. 강원도에서는 논이나 밭을 갈 때, 농부는 두 마리의 소를 일치 협력하여 착오 없이 작업하기 위하여 지시명령을 내리는데, 그 지시명령을 회화체로 하지 않고 길게 또는 짧게 발음하고 음률까지 엮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민요구실을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소모는소리의 특징은 소모는소리가 밭갈애비와 부림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만큼 뒷소리가 없는 개별요라는 점이다. 소모는소리는 철저하게 밭갈애비와 부림소 사이의 일대일 관계에서 불리지는 소리인 셈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이 소리이지 밭갈애비가 부림소에게 내리는 명령어였다. 아이같이나 두벌같이 같은 논밭같이 경우에는 밭갈애비와 부림소만이 일을 하는 편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팽이나 쇠스랑을 들고 다니며 개별적으로 흙밥을 깨거나 두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의 일거리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 밭 봄부침이나 논 모내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연장으로 고랑을 켜는 밭갈애비의 일과 그 뒤를 따르며 씨앗을 파종

하고 덮는 사람들의 일이나 씨레로 논을 삶을 성군의 일과 모
 를 심는 모꾼들의 일은 서로 리듬이 전혀 달랐고, 각자가 맡은
 일을 하기도 바빴다. 갈이와 파종에서는 소리를 주는 발갈애비
 의 장단에 맞춘 다른 사람들의 규칙적이고 집단적인 행위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동일한 일을 되풀이하며 서로 리듬을
 맞추는 모내기나 김매기와 달리 발갈애비의 소리를 받는 일도
 거의 없었고, 받는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장단의 뒷소리가 아니
 라 매우 즉흥적이고 개별적이었다. 특히 소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리를 주는, 즉 발갈애비의 소리가 일정한 장단이 없이
 같이 상황에 따라 자유 리듬에 따라 소리를 하는 즉흥성과 개별
 성은 소모는소리의 또 하나의 특징을 구성한다. 그리고 소모는
 소리의 즉흥성과 개별성은 가사의 자유 형식으로 연결되었다.

소모는소리도 사람과 소가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이나 서로 달랐다. 물론 소모는소리는 비슷한 곡조와 가사
 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사성보다는 차이성이 두
 드러진다고 할 것이다. 소모는소리는 일정한 장단이 없고 사설
 또한 일정하지 않은 편이었다. 특히 소모는소리에는 다른 민
 요의 사설이 쉽게 차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발갈애비에 따
 라 아라리나 미나리와 같은 다른 곡조의 노래까지 삽입되어 불
 려지기도 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보형(1977)과 김진순
 (1995:58-59)이 이야기했듯이, 소모리소리의 선율은 아리랑
 미나리 등과 같은 강원도 주요 민요의 특성인 메나리토리의 하
 나라는 점에서 말미암았다. 이처럼 소모는소리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리듬의 소리였다. 이는 소모는소리만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냈다.

그저 소 가지고 하는 일은 내가 다 하는 거야. (화천)군에서 최고일 거야 군에까지 내가 뽑혀갔었어, 소 부리는 거. 군에 가서 군청 앞에서부터 그냥 밭가는 소리부터 춤추고 화천읍을 한 바퀴 돌았어. 그거를, 밭가는 소리를 내가 옛날엔 목청이 좋아서 내가 소리도 잘했지만, 저기 비탈밭에 가서 밭을 갈잖아, 밭을 갈고 있으면, 밭가는 소리에 나물 뜯으러 가던 여자들이 처녀들이 그 소리 듣느라고 앉아서, 들어가 앉아서 그 소리를 듣느라고 진용을. (나물도 안 뜯고) 그럼. 진정으로 있다가 해가 지면 그냥 빈 데 차고 가고 그랬어. 소리도 옛날엔 잘했지. 젊어서 총각 적에 나무 하러 가다가 소리를 하니까 나물 뜯으러 가는 처녀들이 수풀 속에 들어가 듣느라고 안 가고 있었어. 나무 덩굴 밑에 날이 뜨거우니까 덩굴 밑에 가 앉아서 나는 지게 지켜놓고 꼭대기 앉아서 해가 지도록 소리를 하지. 그런데 안 가니까 갈 때까지 소리를 했더니. (나무도 못하시고?) 그럼 해가 넘어가니까, 그 처녀들 가고 나는 또 빈 지게 지고 집에 들어왔지 이렇게도 했어. (노래를) 잘했지 화천군까지 가서 소몰이 하는 사람들이 뭐 소만 몰고 가나, 노래를 하면서 가는 거지. 노래를 하면서. (몇 살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한 내가 30 됐나(송제호, 1930년생, 화천군 간동면 간척3리, 2015.11.24).

소모는소리는 논·밭가는 시기인 농사철, 특히 봄철에 강원도 산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을 그려냈다. 필자는 연구를 하면서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봄철에 밭, 특히 산속의 화전을 소로 갈면서 부르는 밭갈애비의 소모는소리가 계곡을 가득 메우며 울려 퍼졌고, 봄나물을 캐러 온 봄 처녀의 가슴을 설레게도 하고, 사람을 슬프게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이는 나만의 경험은 아니었다. 민속학자 전신재

(1989:599-600)도 “석양이 드리운 고즈넉한 저녁때 산기슭에서 마을에까지 들려오는 소모는소리는 처량하고도 아름다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마을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그 노래를 들었노라는 노인들의 회고담을 필자는 현지답사 중에 여러 번 들었다”고 했다. 실제로 연구하면서 직접 목격하였던 춘천시 신북면의 김홍서와 북산면의 김호성과 내평리의 박광순, 홍천군 화촌면의 임은복 등이 밭을 갈 때 산골짜기를 따라 깊게 따라 울려 퍼지는 소모는소리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여보기도 했다. 소모는소리는 어떤 소리이기에 봄처녀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일꾼의 마음의 빼앗아 일손을 놓게 할까? 모내는 소리나 김매는 소리가 봄처녀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을까? 연구가 짧은 탓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구성지고 애잔한 밭갈애비의 목청이 전부는 아니었고, 오히려 소리에 실려 오는 밭갈애비와 부림소가 함께 힘을 모아 논밭을 일구어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물론 밭갈애비와 부림소의 처지는 소에게 내리는 명령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잘 드러내는 넋두리에 실려 전달되었다. 그리고 부림소도 밭갈애비를 통해 자신의 신세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소모는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여느 노동요와는 달리 함께 일하는 밭갈애비와 부림소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신세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삶의 노래라는 점일 것이다. 밭갈애비와 부림소가 함께 하며 부르는 삶의 노래가 어디에 있겠는가?

7

연장사회기술체계와 밭갈애비의 역할

쟁기의 등장은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 가히 혁명적이었다. 농기구는 일정한 지역의 자연을 이용하는 생산 경험의 총화로서 만들어지며, 그 나름대로 독특한 기술적 특징을 구성하였다. 인간은 ‘도구를 제작하는 동물’이라는 말처럼, 기술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했다.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과 관계를 맺는다. 기술의 핵심은 ‘관계’로, 자신을 둘러싼 자연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를 생성한다. 즉 인간은 도구와 기계를 다루는 기술과 결합하여 새롭고 수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 기술에 따라 서로 다른 생산체계와 사회체계가 구성되었다. 파펜버거(Pfaffenberger, 1992)에 따르면, 기술은 단순히 기술 자체 또는 기술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그 나름의 세계, 이른바 사회기술체계(sociotechnical system)를 구축한다

(Pfaffenberger, Bryan, 1992, 안승택, 2007:49~50쪽 재인용 참조). 강원도 산간 지역의 논밭갈이 도구인 연장(쟁기)도 거친 토양의 경사 지형의 산악 지역이라는 생태적 환경에 대한 적응의 산물로 겨리농경, 소겨리 등과 같은 사회기술체계, 이른바 연장사회기술체계를 구성하였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많이 이뤄졌던 겨리농경에 바탕을 둔 연장사회기술체계는 기본적으로 다른 우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간, 축력, 연장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형성되었다.

이 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부림소는 인간이 토지와 맺는 직접적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핵심 매개물이었다. 인간과 토지의 직접적 관계에 바탕을 둔 ‘원시농경’에 소와 같은 축력이 개입되면서 연장사회기술체계라고 일컫는 새로운 사회기술체계가 형성되었다. 연장사회기술체계의 핵심에는 축력이 있었다. 새로운 연장사회기술체계에서 야생 동물을 가축화하여 축력을 생산에 이용하는 과정이 인류 농업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축력의 대표적인 동물이 말과 소였고, 한국에서는 소가 중심 역할을 하였다. 소가 이 체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훈련을 통해 부림소로 거듭나야 했다. 이 과정에서 부림소와 밭갈애비는 고삐, 채찍, 소모는소리를 통해 이뤄지는 독특한 소통체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두 마리가 끄는 겨리농경 지역에서는 안소와 마라소 사이의 역할 분담 속에서 부림소는 상호 소통을 하게 된다. 예컨대 연장사회기술체계에서 부림소

는 체계의 특성을 좌우하는 핵심이었다. 무엇보다 부림소는 독립적 유기체이자 자신만의 생체리듬을 가지고 있다. 발갈애비가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림소의 생체리듬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발갈애비가 부림소를 길들였듯이, 부림소도 발갈애비를 길들였다. 예로 부림소는 발갈애비와 마찬가지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했다. 무엇보다 부림소는 3일을 계속해서 써레질을 한 다음에는 하루 정도는 쉬어주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림소가 탈이 나기 일쑤였다. 따라서 겨리농경 지역의 주요 공동노동조직인 소겨리를 결성할 때, 부림소의 생체리듬을 고려하여 부림소 세 마리로 소 짝을 맺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부림소는 소겨리와 같은 생산조직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인간과 축력의 관계는 마지막으로 연장이라는 도구를 통해 발현되었다. 강원도 겨리농경에서 보이듯이, 인간과 축력 사이에 연장이 놓임으로써 연장사회기술체계가 구축되었다. 연장에는 자연환경, 부림소, 인간, 특히 농민들의 자연관, 일상생활, 전통지식, 세계관 등이 반영되어 있었다. 강원도 산간 지역과 한반도 중북부 이북 지역에서 널리 이용된 선쟁기형 겨리연장은 거칠고 비탈진 경작지 등의 자연환경과 밭 중심의 농경문화를 담아내고 있다. 밭 중심 농경문화는 또한 겨리농경 지역 연장사회기술체계의 핵심도구인 겨리논밭연장을 중심으로 제각각의 경작환경에 적응하면서 호리연장, 훌치·걸기채, 인걸기, 써레 등의 다양한 농기구로 나타났다. 다양한 농기구는 저마다 존재

이유가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축력과 특히 땅을 갈아엎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최종적으로 담아내고 실현하는 기본 그릇이었다. 연장은 땅과 맺는 관계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연장사회 기술체계에서 부림소와 연장은 바위와 나무뿌리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피해 가는 것이 상책이며, 가능하면 땅의 상태에 따른다. 제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늘 엇비슷한 축력을 가진 부림소와 자연의 산물인 나무가 가진 강도의 목재로 구성된 연장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힘이 땅의 저항을 넘어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축력과 연장의 힘과 한계를 알고 자연의 저항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발갈애비의 능력이었다.

연장사회기술체계에서 또 다른 핵심축은 인간, 즉 발갈애비였다. 사실 발갈애비를 빼놓고 연장사회기술체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살린스는 연장과 같은 농기구를 만들어내는 사회기술 체계에서 인간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현대의 기계시대에는 인간은 기계에 종속되었고, 문화의 진화적 미래는 그러한 하드웨어의 진보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 걸쳐 인간 노동이 도구보다 더 중요했고, 생산자의 지적 노력이 그의 단순한 도구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아주 최근까지도 노동의 전체 역사는 바로 숙련노동의 역사였다. 오직 기계에 바탕을 둔 현대 산업체계만이 오늘 날과 같은 비숙련노동자의 비율에 의거해서 존립할 수 있다. 만약 이와 상황이 비슷했다면 구석기 시대는 아마 존립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주요한 원시적 ‘혁명’, 특히 신석기 시대의 식량자원 길들이기는 순전히 인간기술의 승리였다. 즉 신석기 혁명은 새로운 도구나 새로운 자원이라기보다 오히려 기존 에너지원(식물 및 동물자원)과 관

계 맺는 새로운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생계생산을 위한 하드웨어적 도구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를 통과하면서 명백하게 감소한다. 그럼에도 생산은 증가했다. 진정한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간 노동의 산물은 도구의 완벽함보다는 에너지원과 관계를 맺고 도구를 적절하게 다루는 작업자의 기술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 원시적 인간/도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 역할을 하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다(살린스, 2014:128-130)

밭갈애비는 축력과 연장을 연결하고, 무엇보다 이들을 서로 길들이는 핵심 주체로 연장사회기술체계의 설계자이자 실행자였다. 소를 길들이고, 연장을 만들며, 부림소와 연장을 결합하여 땅을 갈며, 그 과정에서 부딪치는 온갖 상황들을 판단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밭갈애비가 해야 할 일이었다. 무릇 연장사회기술체계는 밭갈애비의 숙련성에 많이 의존했다. 즉 논밭갈이와 같은 숙련 지향 기술에서 사용되는 도구나 수단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의 지식과 솜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다(플루흐, 2018:189 참조). 예컨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목재들을 이렇게 저렇게 어설프게 결합해놓은 듯한 연장은 농기계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단순한 구조의 농기구이다. 그렇지만 선술형 무상리 겨리연장은 강원도의 자연환경에 그 어떤 농기구보다 적응력이 뛰어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밭갈애비에게 연장을 다루는 능수능란한 기술을 요구했다. 그렇기에 연장의 탑손을 누구에게 쉽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밭갈애비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담지자였다.

연장사회기술체계는 각기 독립적인 유기체적 체계를 가진 사람과 축력이 연장이라는 도구를 통해 관계를 맺는 체계이다. 이들은 농경이라고 하는 행위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여 자연에 작동한다. 이들의 결합이 적절하지 못하면 농경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연장기술체계에서 연장, 축력, 인간 등 세 주체는 서로 뜻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체계, 이른바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길들여진 관계였다. “돌봄은 말 그대로 ‘돌본다’는 뜻으로, 본질적으로 호혜성(reciprocity)과 관련되어 있다. 연장사회기술체계에서 돌봄은 인간을 중심으로 축력, 연장뿐만 아니라 땅, 작물 등 농사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소들 서로에 대한 열정, 헌신, 지식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호혜적 관계를 규정하는 동시에 반영한다(플루흐, 2018:111참조).” 그리고 길들인다는 것은 또한 길들임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의 인간, 부림소, 연장 등은 서로의 돌봄 속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뜻에 길들여진다. 이 과정에서 인간, 부림소, 연장은 서로를 닮아가며 독특한 자신들만의 세계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실제적인 농경행위 과정에서 부림소, 연장, 토질, 작물, 기후 등이 지닌 각각의 특징에 마주하며 이해와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서로의 관계에 반영하여 자연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에 적응해야 했다. 여기에서 농경 나아가 농업에 관여하는 모든 것, 땅, 작물, 부림소, 기온과 강수 등은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이해된다. 바로 이 지점에 발갈애비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긴밀하게 엮이는 장인의 방식(플루흐, 2018:107)”으로 노동과 과정에

서 형성한 토착지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렇듯 연장사회기술 체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게 된다. 연장사회기술체계에서는 발갈애비마다 농경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관한 선부른 일반화가 이뤄질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겨리연장을 부여잡고 살아왔던 발갈애비, 즉 산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는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압축 성장을 이룩한 기적의 국가, 한국에서 조국산업화 그리고 근대화/현대화는 최고 당면과제였고, 그 속에서도 발갈애비도 그렇게 근대인이 되고자 했고, 그리고 근대인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느 순간부터 전통과 근대의 경계는 명확해졌고, 과거 한국 문화의 바탕을 이루었던 문화는 ‘전통문화’로 쉽게 자리 매겨졌고, 그 문화에 대한 자기부정의 경향이 강렬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점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김성기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저는 지금, 전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저 51년생 토끼띠예요. 그런데 위치가 어떻게 됐냐하면은, 저 사람[이영길, 1962년생, 소로 농사 지음]하고 나하고 밖에, 여기 계촌1리에 소 맥이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바보가 농사짓고, 바보가 소 맥여요. (...) 제가, 제가 추한 이야기를 할까요? 평창 대장간에 가서 저 보섭을 사갈라니까, 보그래 저 발가는 보섭, 보섭을 사니까 “아직도 소로 발가는 사람이 있네?” 얼굴이가 뜨끈하더라고, 그래, 차 칸에, 버스 칸에, 나는 차가 없으니까 버스 칸에 싣고 오니까, 아주먼네들이 “아직까지 소로 발가는 데가 있네?” 야, 그래, 내가 그게, 그게, 엄청나게 얼굴이가 아주 뜨끈하더라고(김성기, 1951년생,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2016.4.13.).

김성기는 동네에서 이름난 일꾼으로 무일푼에서 몇 천 평을 땅을 소유한, 이른바 자수성가한 농민이었다. 그는 기계를 다루는데 서툴기도 하지만, 굳이 소가 있는데 돈을 들어 농기계 사는 것이 아까워 2016년 당시에도 소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는 오늘날 소를 키우고 농사짓는 사람, 한마디로 자신을 ‘바보’라고 하였다. 김성기가 연장의 보습을 사 오는 모습이 그가 태어나서 평생을 함께한 고향, 강원도 농촌에서도 아주 오래된 이상한 모습, 이른바 전(前)-근대인, 정확하게 말하면 비(非)-근대인으로 비치는 세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근대는 무엇이고, 우리는 근대인인 적이 있었던가?

8

밭갈애비와 겨리연장에게 길을 묻는다

마무리를 위해 다시 <강원문화의 이해>의 강의실로 돌아가 보련다. 필자는 종종 한국의 농민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학생들과 몇 가지 물음을 주고받곤 한다. “최근에 생일 때 케이크를 산 사람?”하고 물으면 한두 명이 손을 든다. 그들에게 “얼마짜리 생일케이크를 샀냐?”고 되물어본다. 보통 2-3만 원짜리 생일케이크를 사서 친구들과 먹었다고 한다. 다시 자취생활을 하는 학생은 누구이고, 이 가운데 최근에 쌀을 사 본 학생을 찾아서 쌀값을 물어본다. 보통 10kg에 2-3만 원 정도 했다고 한다. 어떤 학생은 이 쌀로 한 학기를 나기도 한단다. 물론 생일케이크는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단숨에 먹어치웠을 것이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삼성 이견희 회장이나 현대 정몽구 회장은 반도체 또는 램다 엔진을 먹을까 아니면 쌀을 먹을까? 농사지를 사람? 농사꾼과 결혼할 사람? 등의 질문을 던져본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들의 총수뿐만 아니라 범부인, 우리는 밥, 이른바 쌀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누구도 선뜻 그 쌀을 생산하는 농사꾼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농촌에서 사는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제를 살았던, 오늘을 살던 그리고 오지 않는 내일을 살아야 할 누구도 인간은 땅에서 난 먹거리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땅을 딛고 땅에서 난 먹거리로 살아야 하는 ‘흙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다. 흙의 자식인 우리는 땅이 준 먹거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어느 누구도 농사꾼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굳이 농사꾼이 없더라도 언제부턴가 과학과 자본이 일군 바이오 식품이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 또한 과학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분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 김남주 시인의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지 않았고, 우리들 가슴 속에도 있다’라는 절규처럼 ‘38선’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물리적 분단은 정신적 분단을 잉태하였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원도 그리고 한국의 지도를 그려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반쪽 강원도 또는 반쪽 한반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린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사고는 38선을 넘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새 한반도의 반쪽을 잃어버렸다. 특히 강원도는 북강원도라는 한쪽을 북쪽에 남겨두면서 북에서도 남에서도 외톨이가 되었다. 사실 이런저런 복잡한 사상이나 이념

을 떠나 오로지 한반도 전체 지형도만을 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만 보아도 강원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가 훤히 보인다. 강원도에 걸쳐 있는 태백산맥은 함경도 낭림산맥과 더불어 한반도 중추, 이른바 백두대간을 형성한다. 이 기나긴 백두대간과 13개 정맥들이 만드는 높은 산간에는 산촌문화 그리고 백두대간의 크고 작은 산맥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특히 서해 방향으로 흘러내린 저지대에는 들판문화가 만들어졌다. 강원도는 백두대간의 아래 축을 구성하는 태백산맥을 고스란히 품으며, 한반도 남쪽으로 펼쳐지는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보면 강원도는 분단의 중심에서 남북의 중심, 즉 한반도의 배꼽으로 그 위치가 확연히 달라진다. 거리연장을 비롯한 강원도 산촌문화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뚜렷하게 보인다. 한반도 반쪽, 즉 강원도, 경기도 북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지는 거리농경이 중심이 되었던 지역으로 하나의 문화권, 이른바 거리농경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강원도 거리연장은 분단의 시대, 삼팔선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온 ‘백두대간의 맥’이었다.

한반도가 분단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강원도를 비롯한 한반도의 중북부 산악지대는 다른 방식으로 근현대를 경험하고 나아가 한반도는 다양한 생산문화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사실 한반도의 반은 전혀 다른 지역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앞에서 언급한 쟁기와 연장의 의미에서 잘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토인 한반도의 남부지역에서는 호리가 일반적이었고, 이를 쟁기라고 불린다. 쟁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한

반도의 곳곳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발전되어온 다양한 논밭 같이 농기구들을 총칭하는 대표성을 부여받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연장, 가대기 등 서로 다른 이름들을 한낱 방언 정도로 자리매김해버렸다. 우리는 두 마리 소가 ‘쟁기’를 끌어 논과 밭을 가는 모습 그 자체가 특이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겨리연장 사회기술체계는 호리쟁기 사회기술체계의 틀 속에서 이해되었고, 자신의 위치와 목소리를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다. 호리와 겨리연장을 앞에 두고 쟁기만을 논할 뿐이었고, 소겨리가 엄연히 이 땅에 숨을 쉬고 있음에도 두레가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렇지만 겨리농경은 연장과 가대기라는 논밭같이 농기구를 사용해 온 경기 북부, 강원도, 북한 지역에서 발전된 논밭같이 방식이었고, 나아가 그 외의 지역에서도 호리쟁기 이전에 많이 이용되었다. 무엇보다 한반도 남부 지역이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왜쟁기에 의해 ‘점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함경도 등 북한 지역에는 왜쟁기가 밭을 들여놓지 못했다. 이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전통적 농경 방식과 그에 맞는 농기구를 오늘날까지 유지·발전시켜왔다. 한마디로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한반도의 숨결을 묵묵히 지켜온 자존심이었다. 결국, 연장과 가대기와 함께 형성된 겨리농경은 쟁기의 호리농경의 아류이거나 또 하나의 지역적 변형이 아니라 강원도를 비롯한 한반도 중북부 산악지대의 열악한 농업 환경에 적응하며 발전시켜 온 독특한 사회기술체계라고 할 수 있다. 겨리연장은 논밭같이

도구를 넘어 강원도 산간 지역의 자연, 산림 지식, 소와 인간의 소통방식, 노동조직 등 사회관계 등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지역 사회문화의 총체다.

그런데 백두대간에 자리 잡았던 산촌문화는 백두대간이 삼팔선으로 나뉘고 남강원도에 태백산맥을 끝자락에 남겨두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대표되는 삼남 지방의 들판 문화가 지배하는 한반도의 반쪽이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강원도는 어느 순간 북쪽의 두메산골이 되었고, 또한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사회문화도 주변이 되었다. 북한에서 강원도는 어떤 곳일까? 한국에서처럼 최북단의 두메산골이라기보다는 따뜻한 남쪽이겠지만, 짝 잃은 분단의 도(道)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처럼 분단이 되면서 강원도는 남북한 양쪽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의 배꼽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

오늘날 근대화 시대를 걸쳐 웰빙 시대가 되면서 산간오지는 청정자연이라는 이름으로 얼굴색을 달리했다. 청정자연이라는 이름은 한 감독의 영화의 제목인 ‘강원도의 힘’과 결합하면서 더욱더 빛을 발한다. 영화 <강원도의 힘>에서 강원도 자연의 비경으로 찾아 들어온 주인공들에게 강원도는 무엇이었을까? 영화를 보며 감독의 의도를 읽어내는 데 서툰 내 눈에는 지친 도시인, 이른바 서울 사람들의 원초적 욕망을 쏟아내는 배출구에 불과했고, 강원도 산천은 그냥 말없이 그들을 감싸 안을 뿐이었다. 언제부턴가 ‘강원도의 힘’하면 ‘청정자연’을 떠올린다. 그리

고 마치 이를 강원도의 자랑거리처럼 내세운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끔은 화가 치솟기도 한다. 어찌 이것이 강원도의 힘이 된다는 말인가? 강원도의 힘은 조국근대화 과정에서 한 발짝 밀려나 있다가 청정으로 이미지화한 오지의 청정자연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사회문화에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겨리연장과 겨리공동체가 있었다. 이제 겨리연장 농경문화와 공동체 위에 덧씌워진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농경 사회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겨리연장 사회기술체계의 숨소리를 되살려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의 첫걸음은 분단의 사고를 넘어서는 일이다. 신동엽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는 시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고 일갈했듯이, 이제 우리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우르는 땅의 시선으로 이 땅 곳곳에 겹겹이 쌓인 우리네 삶과 문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사고가 남쪽에 가두어지면서 문화의 다양성도 상실했다. 단순히 전통이 아니다. 삶이다. 그 삶이 얼마나 다양한가? 우리는 다양한 삶과 문화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는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서구의 논리는 삶의 지표가 되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바라보는 하나의 일리(一理)에 불과한 서구의 논리가 어느 순간 진리(眞理)가 되어있다. 마치 다품종 다작을 유지해 온 소농을 대신하여 단일 작물의 재배를 지향하는 대농장체제가 진리인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서구가 제시한 근대화된 세

상을 향해 열심히 뛰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오지 않는 미래일런지도 모른다. 그 과정에서 수 천 년 동안 우리네 삶을 지탱해 오며 이 땅에 응축된 갖가지 삶과 사회문화는 ‘전통’으로 한 묶음이 되어 끊임없이 부정되어 내팽개쳐졌고 어느덧 의미를 상실하였다. 세계근대식민체제에 길들여진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면서 만들어 왔던 우리만의 삶과 가치에 무관심했다.

강원도 농경문화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무엇이지?’, ‘이제까지 보지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무도 달랐다. 하나의 기준, 한마디로 하나의 모델이 있지 않았다. 조선 풍토에 맞는 농법을 찾고자 했던 이땅 농서의 효시인 『농사직설』의 “오방의 풍토가 서로 달라 작물에 따른 농법이 각기 있다五方風土不同 樹藝之法各有”라는 얘기가 큰 울림을 주었다. 특히 농사는 농민 개개인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농사법을 만들어내고 행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통하여 농업은 주어진 하늘[天]과 땅[地], 그리고 때[時]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꾸려져 왔고, 또한 독특한 농경문화[人]를 일구어왔다(구자옥, 2014:487). 여기에서 하나의 정해진 틀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웠다. 강원도의 농경문화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원도 산야를 갈고 삶은 연장, 씨레 등 농기구는 같은 듯 하면서도 개인마다 달랐고, 그 다름은 저마다 의미를 만들어냈다. 자신만의 천지인(天地人) 세계가 거기에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연장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경외심은 이런 다양함에서 오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연장의 각 부분을 이루는 목재



참고문헌

- 강석준, 1989(1959), <쌍명에 가대기>, 『문화유산』 제2호, 주강현 편, 1989, 『북한의 민속학: 재래농법과 농기구』, 역사비평사, 255~268쪽.
- 구자옥, 2014, <타카하시 노보루와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 타카하시 노보루(高橋 昇), 아이누마지로·타카하시 코시로·미야지마 히로시 편, 『朝鮮半島의 農法과 農民』, 구자옥·이도진·강수정·한상찬·김장규 역, 2014, 『조선반도의 농법과 농민: 下 영농실태조사(평안도·함경도)』 하, 민속원, 487~603쪽.
- 국립농업과학원, 2011, 『한국의 토양분류 및 해설』, 토양조사자료 14, 한국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의 농경문화 1』.
-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세시풍속사전』.
- 김광언, 2010, 『쟁기연구』, 민속원.
- 김세건, 2012, <‘거리연장’의 사용과 ‘소모는소리’의 특성: 강원도 홍천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31호, 45-71쪽.
- 김세건, 2014, <강원도 산간 지역의 ‘쟁기’의 발달과 특징: 거리쟁기인가 아니면 거리연장인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53집 2호, 1-52쪽.
- 김세건, 2016, <겨리소 길들이기>,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55집 2호, 8-56쪽.
- 김세건, 2017a, <강원도 산간 거리농경지역의 소거리 구성과 특징>,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 65집, 7-70쪽.
- 김세건, 2017b, <강원도의 근현대: 분단, 오지 그리고 청정>,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41호, 59-96쪽.

- 김세건, 2017c, <강원도 거리농경지역 논연장과 밭연장의 비교>,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56(2), 38-89쪽.
- 김세건, 2018a, <강원도 농촌에서 소를 마련하는 제도와 특징: 해방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51(2)권, 9-58쪽.
- 김세건, 2018b, <제1절 농업>,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22권: 민속[마을·생업], 241-308쪽.
- 김세건, 2019a, <강원도 거리연장의 부분별 목재 종류와 산림지식>,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44호, 5-44쪽.
- 김세건, 2019b, <강원도 거리농경지역에서 '밭갈애비'의 주요 같이 기술과 특징>, 한국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69집, 81-118쪽.
- 김의숙, 1995, 『강원도 민속문화론』, 집문당.
- 김재호, 2004, 『생태적 삶을 일구는 우리네 농사연장』, 소나무.
- 김진순, 1995, <강원도 지역 '소모는소리'의 현장론적 연구>, 관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과농소초課農小抄』, <전제田制(四十一)>, 서유구, 정명현·김정기 역, 2008,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본리지本利志 2』, 소와당.
- 박호석, 2001, <재래의 농기구>, 박호석·안승모, 『한국의 농기구』, 어문각, 71-241쪽.
- 배영동, 2003, <문화전승으로서 농업기술 교육의 전통과 변화>,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25집, 421-450쪽.
- 배영동, 2004, <조선 후기 두레로 본 농업생산의 주체>, 실천민속학회, 『실천민속학 연구』, 6권, 271-293쪽.
- 사회과학언어연구소, 1991, 『현대조선말사전(상·하)』, 대제각.

- 살린스, 마셜(Sahlins, Marshall), 박종환 역, 2014, 『석기시대 경제학: 인간의 경제를 향한 인류학적 상상력』, 한울.
- 안승택, 2007,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업과 재래농법: 경기남부 논밭병행영농의 환경·기술·역사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우하영(禹夏永, 1741~1812), 1796 전후, 『천일록天一錄』, 김혁·박중훈·고민정·안승택 역, 2015, 『역주 천일록: 종이에 담은 천향』 제1책, 화성시.
- 윤수중, 1990, <한국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보형, 1977, <민속예술>, 문화공보국 문화재관리국, 『한국 민속 종합조사 보고서』, 제 8권 강원도편, pp. 542-570.
- 이익섭, 1981,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 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준석, 1998, <겨리농경의 기술적 의의와 노동조직의 양상>,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한길, 2009, <양양군의 '소모는소리' 고찰>, 강원도민속학회, 『강원민속학』, 23집, 173~206쪽.
- 이희승 편, 2003(196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전신재, 1989, <홍천 지역의 설화와 민요>,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편, 『강원구비문학전집』, 한림대학교출판부, pp. 589-602.
- 정시경, 1989(1960), <기경용 재래농기구의 유형과 그 분포>, 『문화유산』 6호, 주강현 편, 1989, 『북한의 민속학: 재래농법과 농기구』, 역사비평사, 165~201쪽.

- 정시경, 1989d(1961), <우리나라 재래농기구의 유형과 그 분포>, 『문화유산』 3호, 주강현 편, 1989, 『북한의 민속학: 재래농법과 농기구』, 역사비평사, 148-164쪽.
- 조선민속전통편찬위원회, 1994, 『조선의 민속전통, 권4, 로동생활 풍습』,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플루흐, 안 다우 판 더르(Plog, Jan Douwe van der), 김정섭·유찬희 역, 2018, 『농민과 농업:차야노프의 사상을 재조명하다』, 따비.
- 화이트 주니어, 린(White Jr., Lynn), 강일휴 역, 2005, 『중세의 기술과 사회 변화: 등자와 쟁기가 바꾼 유럽의 역사』, 지식의 풍경.
- 헤르만 라우텐자흐(Herman Lautensach), 김종규·강경원·손명철 역, 2018, 『코레아: 일제 강점기의 한국지리』, 푸른길.
- 小林房次郎·中村彦, 1905,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Ⅱ:京畿道·忠清道·江原道』.
- Plaffenberger, Bryan, 1992, "Social Anthropology of Techn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1, 1992,